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8월 7일 목요일 제963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S®

'서비스에서 기술로' 스타트업 대전환

원천기술 개발 통해 서비스 생산하는 신생벤처 급부상
파이브락스·SE웍스·포도랩스 등 국내외서 투자 유치
특허 보유·서비스 확장성 높아 벤처캐피털 자금 집중

스타트업 유행에 대변혁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단발성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이른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벤처 부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역시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찾아 투자하기 위해 혈안이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A부터 Z까지 완전히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벤처를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은 기존에 있던 플랫폼이나 소스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지난해 서비스기반 스타트업은 99%가 넘을 정도로 절정을 이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올해까지 살아남은 업체는 3%도 채 안된다는 게 벤처캐피털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들 중 '잘 나가는' 업체로 파이브락스·SE웍스·포도랩스가 주목받고 있다.

파이브락스는 특히 '대박'을 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파이브락스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 그룹을 세분화해 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초미세 타깃 마케팅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브락스는 국내와 일본에서 45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승승장구해오다가, 지난 6일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 광고 기업 탭조이가 지분을 모두 인수했다. 인수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최소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수 파이브락스 대표는 "원천기술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E웍스는 앱의 '소스코드' 내용을 외부인이 읽기 어렵게 만드는 '난독화' 기술이 핵심적으로 들어간 모바일 보안프로그램 '메두사(MEDUSAH)'를 만들었다. SE웍스의 홍민표 대표는 2008년 쉬프트웍스를 설립한 후 코스닥 상장사 인프라웨어에 회사를 넘긴 경험도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모바일 백신과 관련한 원초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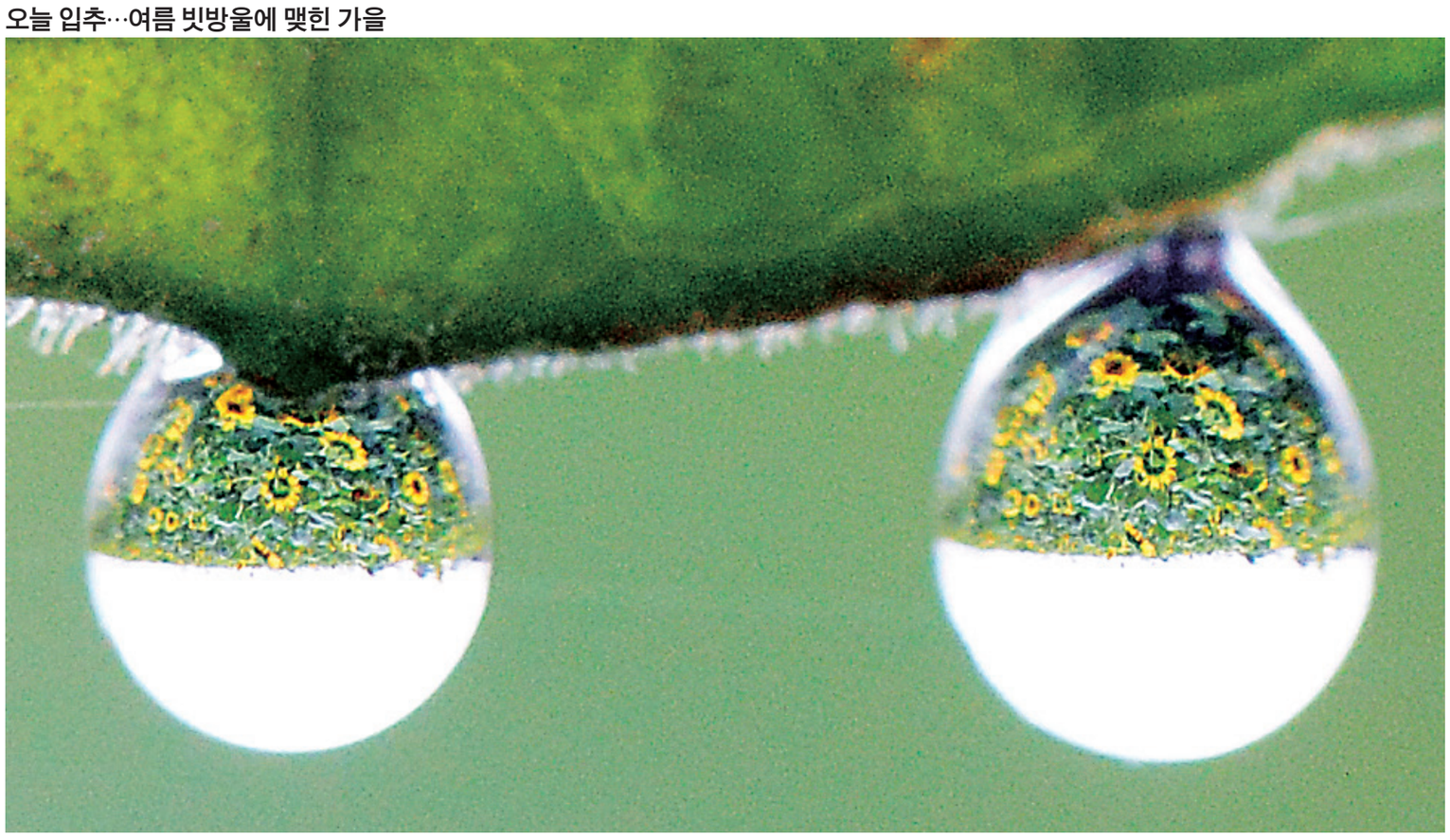
포도랩스(Podo Labs)는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 '포도'를 만든 스타트업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뜨는 가장 큰 이유는 '질긴 생명력'이다. 쉽게 베낄 수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특허 보호가 용이하고, 플랫폼 등 원천기술을 통한 서비스 확장성이 높아 사업 확대의 기회 역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내 스타트업이 지나치게 서비스기반으로 흐르다 보니, 제품 간 차별성이 없고 서비스 확장력도 약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크게 작용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들여다 보면 명확하다.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양성됐다. 전세계 IT 업계를 주무르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오라클·휴렛팩커드 등 대부분이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출발했다.

박성제 기자 psj@

오늘 입추…여름 빗방울에 맺힌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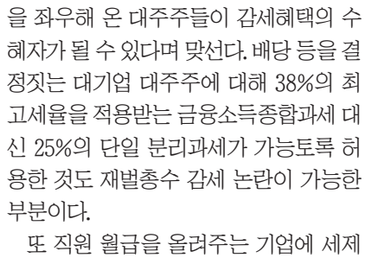


가을이 들어선다는 절기상 입추와 한 해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이 함께 온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해바라기가 활짝 폈다. 간밤에 내린 빗방울에 비친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한여름 속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이번처럼 입추와 말복이 겹친 이유는 입추와 말복의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추는 24절기에 포함돼 양력 기준으로 날짜가 미리 정해 져 있고 말복은 음력 기준 6월~7월 사이에 정해진다. 하지 후 세 번째 경일(육십갑자 중에서 경자가 들어가는 날)인 초복을 기준으로 두 번의 경일이 지난 후다. 경일은 10일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 후 20일이 지나야만 말복이 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걷어 내수 활성화 5700억 푼다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서민·中企 4890억 세부담 덜어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1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에 나눠주기로 했다.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련기사 3·4면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확장적 세제를 구사하다 보니 공약가계부 이행과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켜지게 됐다. 재계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 야당은 '재벌감세'라며 각자의 논리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5680억원의 국세수입은 내수활성화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단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해 3대 패키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재계는 미래의 성장동력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경영권을 좌우해 온 대주주들이 감세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맞선다. 배당 등을 결정짓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5%의 단일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허용한 것도 재벌총수 감세 논란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없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곧바로 소비가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숫자로 본 NEWS

조세 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 OECD 최하위

0.024%p (세전 빈곤율 0.173% → 세후빈곤율 0.149%)

	세전(%)	세후(%)	차이(%p)		세전(%)	세후(%)	차이(%p)
1 프랑스	0.347	0.079	0.268	22 캐나다	0.26	0.119	0.141
2 핀란드	0.322	0.073	0.249	23 호주	0.273	0.144	0.129
3 독일	0.323	0.088	0.235	24 이스라엘	0.28	0.209	0.071
4 룩셈부르크	0.306	0.072	0.234	25 칠레	0.204	0.18	0.024
5 벨기에	0.323	0.097	0.226	26 한국	0.173	0.149	0.024

조세 소득불평등 개선 '먼길'

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은 각각 0.173%와 0.149%로 그 차이가 0.024%포인트에 불과했다.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아졌다.

김부미 기자 boo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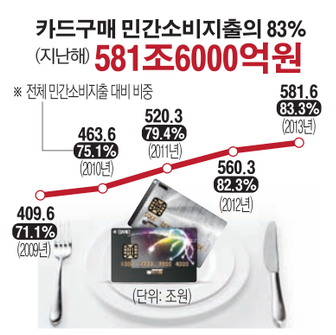


확 줄어든 원화 위조지폐

미국 100달러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화의 위조지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은, 금융기관,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300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비 39.6% 감소한 수치다.

이진영 기자 mint@



쑥 늘어난 카드 구매실적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이 국내 민간 소비지출의 80%를 넘어섰다. 7일 BS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신용카드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카드 이용 구매실적은 581조6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 697조9000억원의 83.3%에 달했다. 신용카드는 488조9000억원, 체크카드는 92조7000억원으로 체크카드 비중이 15.9%를 차지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Life 목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취준생 vs 직장인


최종찬 원장 ▶5


김규옥 부시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기술금융 지원' 은행마다 온도차 뚜렷

신한·하나銀, 적극 상품 개발
국민·우리銀, 아직도 "논의중"
관행개선 vs 전시행정 '시각차'

정부가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를 수용하는 은행별 입장이 양분되고 있다. 발 빠르게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않는 은행들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담보보다 기술가치에 주목해 대출을 진행하는 기술금융을 경기부양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끌어 내면서 은행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구색 맞추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무분별한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부실 연결고리를 우려하면서도 기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속내가 복잡하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기술금융 부문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신설해 총 1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또 기업여신심사부내 23명의 기술전담 심사역을 지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여신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기술평가(TCB) 우수기업대출이란 관련 상품을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시했다. 기술신용등급 B+ 이상인 중소기업에게 최고 10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이보다 한발 늦었지만 하나은행 또한 기술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5일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발언 직후 하나은행에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하나 중소기업 행복나눔대출'을 출시했다. 담보가액의 최대 1.6배까지 대출하는 상품으로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이처럼 대기업과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는 관행을 바꾸고 있는 은행과 달리 기술신용평가 관련 준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은행도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와 인센티브 지원 범위에서 관련 부서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해 구체적인 출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TCB 활용한 전용 상품 출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TCB 등급에 따른 여신등급과 부도율 등 사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 연내 상품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철우 기자 acw@

본사인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삼성·애플 화해무드 돌입…미국간 이재용 '역할론' 주목

미국外 국가 특허소송 철회

美 출장서 돌아온 후 2주만에 다시 미국行
팀쿡CEO와 '막후협상' 합의 이끌어 낸 듯

애플, 1심 배상판결·삼성 판금 항소 포기
6월엔 美 ITC 판정 항고 나란히 취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나란히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블룸버그

삼성전자·애플 국가별 주요 소송 경과

2011. 4. 애플,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삼성전자, 한국(서울중앙지법)·독일·일본 법원에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2011. 6. 삼성, 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 법원에 제소
삼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 수입 금지 신청
애플, 한국(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삼성 제소
애플,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1. 7. 애플, 미국 ITC에 삼성제품 수입 금지 신청
애플, 호주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1. 8. 애플, 일본 법원에 가처분 신청
네덜란드 법원, 삼성제품 일부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2011. 9. 삼성, 호주 법원에 애플 제소
2011.10. 삼성전자, 프랑스·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영국 법원에 9월 애플 제소에 대한 반소
2011.12. 애플,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 제소
2012. 2.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 2차 제소
2012. 3. 독일 만하임 법원,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판결
2012. 4. 삼성전자, 애플의 미국 법원 2차 제소에 반소
2012. 8. 서울중앙지법, '애플이 삼성 특허 2건 침해–삼성이 애플 특허 1건 침해' 판결, 미국 법원 배심원단,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평결. 손해배상금 10억5000만 달러 책정
2013. 6. 일본 도쿄지법,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판결
2013. 8.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 행사
미국 ITC,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 판정. 삼성제품 수입금지 건의
2013.10.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삼성 제품 수입금지 결정
2013.11. 미국 법원 배심원단, 삼성전자에 2억9000만 달러 추가 배상 평결. 최종 배상액 9억3000만 달러
2014. 3. 일본 도쿄지법,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판결
2014. 6. 삼성–애플, ITC 판정에 대한 항고 나란히 취하
2014. 7. 애플, 미국 1차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2014. 8. 삼성–애플, 미국 외 국가에 특허 소송 취하 합의

실익없는 전방위 특허전…'마지막 대결' 美 소송은

"양사 특허소송 사실상 마무리" 분석
배상액 부담 삼성 포기 쉽지 않을 듯

'세기의 특허 대결'로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3년 4개월 만에 화해 무드에 접어들었다. 양사는 이달 6일 미국 이외 9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양사의 특허사용계약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사는 2011년 4월 이후 전방위적인 특허전을 벌였다. 크고 작은 소송전을 모두 합치면 이번 특허 대결의 진원지인 미국은 물론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0개 국가에서 힘 겨루기가 진행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3년 넘게 특허전을 치르면서 양사 모두 실익을 크게 챙기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사 특허전의 진정한 피해자는 '소비자'이고 스마트폰 시장의 두 축이 흔들리는 것을 틈타 중국 업체들만 수혜를 입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냉철하게 비판했다.

일례로 삼성전자는 유럽지역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기는 했지만,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의도했다는 점 때문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애플도 일부 국가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삼성전자가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를 일부 바꾼 대체 제품을 출시하면서 헛 힘만 썼다.

업계는 양사의 이번 합의가 지난 3년여간 끌어온 특허 소송을 모두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배상금이나 분쟁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부터 소송을 철회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양사의 소송전 축소가 결국 미국 소송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바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용재 변리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양사의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 회사가 기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한 게 아닌 만큼 세계인의 눈과 귀는 미국을 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된 미국에서는 1차 소송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와 지난 3월 시작된 2차 소송에 대한 재판부 판결 등 2건의 소송이 남아있다.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양사 모두 항소했지만, 애플은 지난달 30일 이를 취하했다. 업계는 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삼성전자가 항소심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2차 특허소송에선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230억원),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연말께 나온다.

장효진·서지희 기자 js62@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의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이달 6일 합의하면서 현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온 지 2주 만인 지난달 29일 시애틀로 다시 출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8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6일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앤컴퍼니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존 말론 리버티미디어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회장, 로웰 맥 아담 버라이즌 CEO, 랜달 스티븐슨 AT&T CEO, 잭 마 알리바바 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긴밀히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팀쿡 CEO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약 20일 후 애플은 1심 배상(9억3000만 달러) 판결에 더해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금지를 끌어내기 위해 제기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격렬한 특허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엔 삼성전자와 애플의 화해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양사는 지난 2년간 세계 어느 법원에서도 추가 소송을 벌이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6월엔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한 항고도 나란히 취하했다. 업계는 양사의 이번 합의가 2주 만에 재 출장길에 오른 이 부회장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을 통해 팀쿡 CEO와 다시 한 번 만나 특허 소송 등 현안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삼성전자 측은 모두 언급을 피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로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며 "두 회사가 벌여온 세기의 특허 소송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의 특허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9개국으로 확대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이들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양사의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효진 기자 js62@

2014년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중국	
삼성전자	25.2%	샤오미	14%
애플	11.9%	삼성전자	12%
화웨이	6.8%	레노버	12%
레노버	5.4%	쿨패드	12%
샤오미	5.1%		

※ 출하량 기준
※ 출처: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샤오미·화웨이 '공동의 적'?

中 스마트폰 돌풍에 위기감
새제품·기술개발 공감한 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거센 추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양사가 소송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기술력까지 갖춘 스마트폰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애플의 '빅2'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양사는 소모적인 소송전을 끝내고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출하량 기준)로 1위에 올랐다. 중국 시장에서 20% 이상을 점유하며 지난 2년간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2%로 급락하며 2위로 내려 앉았다. 중국 업체 화웨이와 쿨패드가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어 2위 자리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에 밀려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올해 2분기 30%대로 크게 축소됐다. 반면 화웨이(6.8%), 레노버(5.4%), 샤오미(5.1%) 등 중국 3대 스마트폰 업체는 점유율을 약 20%까지 끌어올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 합계(삼성 25.2%·애플 11.9%)는 37.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6.0%)보다 무려 8.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와는 반대로 '대륙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는 처음으로 세계 시장 5위권 내에 진입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근로자 임금 올리면 대기업 5%·中企 10% 세액 공제

'소득증대 3대 패키지'

대주주 금융소득 단일 분리과세 적용
배당수익 원천징수율 14%서 9%로
4000개 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
현대차 외 10대그룹 미미 실효성 의문
고용 확대·투자 기업엔 세공제율 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은 가계 실소득을 늘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짰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제외해 실제 걷는 세금은 크지 않아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오히려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재벌 감세라는 비난 여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설… "분명한 경기부양 효과 있을 것" =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가계의 실소득을 높이고자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5%의 세율을 적용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연봉 2억원 정도의 고액연봉자는 제외해 기업보다는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20% 덜게 됐다.

문제는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7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돼 재벌감세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또 정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9%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약 4000개다. 이를 실제 대기업에 적용해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내야 할 세금은 3632억원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이 중 현대차가 더 내야 할 세금 2983억원을 제외하면 6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풀지 않은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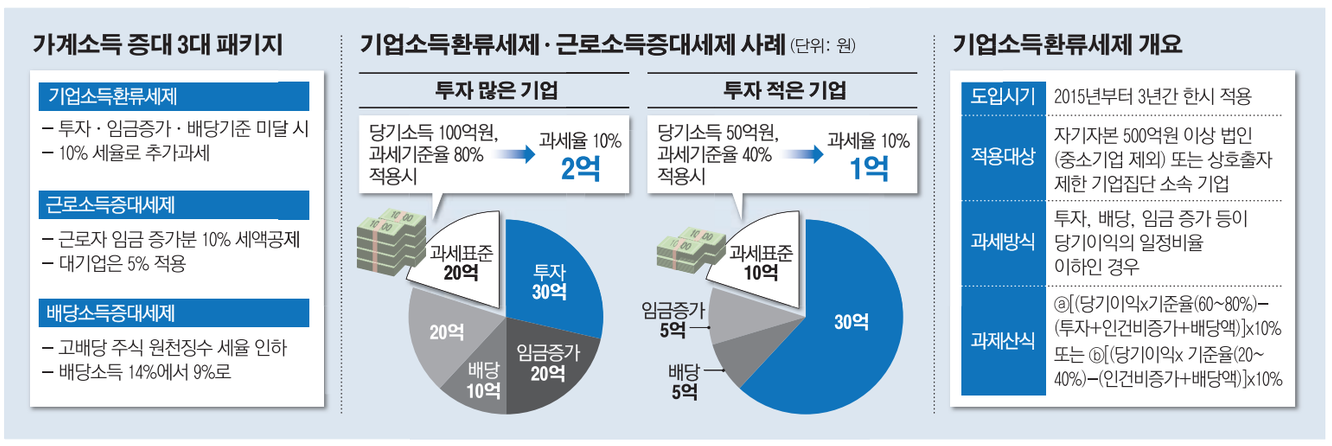
◇고용 창출에 인센티브…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해 일자리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씩 줄인 반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던 추가공제율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한해 각각 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기업과 지방투자의 세금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고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같은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최경환 "배당소득 증대, 재벌만 혜택받는 것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 SBS 나이트라인에 잇따라 출연해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의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럴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세월호 참사 영향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8년 이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기업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리면 내수 활성화로 연결돼 결국 기업소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전월세가 안정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10대그룹 稅부담 최대 1조1016억

〈당기 순익 80% 과세〉

'환류세' 도입… 기업간 온도차

70% 땐 7300억, 60%는 3632억
전경련·중견련 "부작용 우려" 논평
중기 비중 높은 상의는 언급 안해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6일 주요 경제단체가 내놓은 논평의 서두는 '내수 침체를 해결할 법안'으로 모아졌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련 모두 세법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입장이 달랐다. 전경련은 세제 도입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돼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 회원사 비중이 높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이번 논평에서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돼 언급하지 않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로 재벌총수가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자감세'란 비판 여론이 일자 최경환 부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재벌총수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해 총수 외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 예상 상위기업

단위: 억원, ⓐ안 기준율 80%, ⓑ안 기준율 40%로 가정, ⓐ안에서는 유형자산 취득금액과 무형자산 취득금액 합계로 산정, *표시는 상장사 ※출처: 에프앤가이드

기업	지난해 기준 예상 환류세 ⓐ안(투자 포함)	ⓑ안(투자 제외)
*현대차	969	1481
*네이버	1307	762
*현대모비스	1129	614
신한은행	1003	467
*현대하이스코	408	604
*기아차	336	743
코닝정밀소재	397	334
국민은행	673	322
*삼성전자	309	4169
하나은행	524	262
넥슨코리아	424	257
신한카드	520	256
SK ENS	284	165
교보생명	315	157



한편,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되면 10대그룹이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는 당기순이익의 80% 과세 시 1조1016억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1억2000만~2억원 연봉자 퇴직소득세 60만원 더 낸다

개인·가계 세금부담 어떻게 바뀌나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 30% 깎아주기로
10년만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년부터 연봉 1억2000만원~2억원의 상위 2% 고액연봉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6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반면 나머지 98% 임금근로자들은 지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10년~15년 이하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 퇴직금 많을수록 실효세율↑…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 30% 경감= 지금까지 정부는 퇴직소득의 40%를 과세 표준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해준 뒤 나머지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때문에 저소득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율이 근로소득공제율(9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고액 연봉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소득세를 급여수준별로 100%~15%로 차등공제하기로 했다. 퇴직금이 많을 수록 실효세율을 높여 근로소득세와 같이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 기준은 종전 연봉 5000만원 수준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해 종전보다 저소득자가 유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때보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2012년 기준 99.6%) 연금에 대한 세 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없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명 중 2%인 5만3000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 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고 2%의 세 부담은 6000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10년만기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여행자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만기 15년 이상인 상품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50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에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한도를 1800만원까지 높였다.

27년간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600달러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받게 된다. 자진신고를 늘리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올린다.

이밖에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고령자 등의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저축과 통합·재설계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퇴직금 소득공제율 차등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단위: 원 ※소득공제율: 기존 40% 15~100% 차등화 ※근속연수 20년 기준, 2012년 국세청 통계 활용

총 급여	퇴직금	세부담변화	
		기존	개정
3500만	5833만	138만	18만
7000만	1억1700만	362만	108만
1억2000만	2억	729만	680만
2억	3억3300만원	1322만	2906만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변화

항목	기존	개정
생계형저축비과세한도	3000만원	5000만원
생계형 고령자 가입연령	60세	2019년까지 65세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	120만원	240만원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7년	3년

주요 생활밀착형 세재 개편 ※출처: 기획재정부

항목	내용
세금납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 가능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 상향 조정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체크카드	올해 7월~내년 6월 사용액중 지난해보다 증가액 40%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016년까지 연장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 부담

항목	기존	개정
만기 10년이상 15년 미만	혜택없음	이자상환액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
만기 15년 이상	이자상환액 최고 1500만원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최고 1800만원 소득공제

野 "반드시 막겠다"… '기업소득환류세제' 與도 이견

국회서 수술 불가피

새정치 "법인세 인상부터"
與 "투자로 연결될지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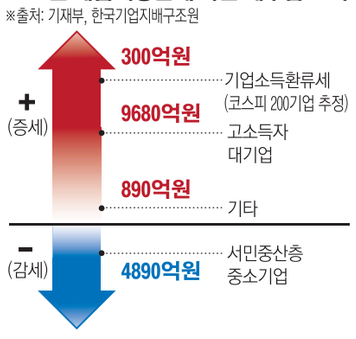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제출은 다음달 23일로 잡혀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효과

※출처: 기재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대 쟁점은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과다한 자금(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배당 등에 쓰게 하겠다며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새누리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석훈 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그만큼 세를 공제해주겠다는 것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앞서 법인세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는 모두 28조원으로, 연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배당소득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냐"며 "이 혜택을 받는 것은 대주주"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자체 세법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의 진통을 예고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세금우대종합저축 없애기로

1인당 1만8000원 더 내는 셈… 사실상 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 3000만원서 5000만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따라 내년부터 20~59세의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에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도가 3000만원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4조8000억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60세 이상에서 2019년까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57만 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하면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약 1000만 계좌를 보유한 20~59세의 가입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얹어주는 셈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금통위 1주일 앞두고… 금융硏도 KDI도 "기준금리 인하" 피력

국내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같은 날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앞서 정관계 인사들이 금리인하 여론을 일으켰고 시장이 화답했다. 이어 이제는 국내 주요 연구소들이 금리인하로 향하는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모양새다.

금융연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4.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9%로 수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 수출 확대가 완만하고 세월호 사태로 인한 심리위축으로 내수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더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KDI도 금융연과 같은 날 금리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KDI는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3분기에 한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예상했다고 6일 발표했다. 김준경 KDI 원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현 경제상황이 금리인하를 낮출만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지난 5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금리동결을 주장했으나 최근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한달 만에 경제정책의 3대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통화정책이 맞물려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 기자 mint@

"소비·투자 개선세 미약… 수출도 견고하지 못해"

기재부 '그린북' 발간

6월 취업자 증가 39만명 그쳐

기획재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산업활동이 4~5월의 부진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6월중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달(41만3000명)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6월중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개월만에 상승 전환(0.2p)했다.

생산지표는 사정이 좀 나았지만 온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광공업 생산은 징검다리 휴무 등이 사라지면서 전달의 마이너스 2.8% 에서 2.9% 상승으로 돌아서 5월 부진을 다소 만회했다.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출판·영상업, 금융·보험업 중심으로 증가(0.5→1.6%)했지만 소매판매는 전월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증가폭 둔화(1.2→0.3%)됐다.

7월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과 휴대폰,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비 2.5→5.7%)됐지만 일평균 수출은 전달보다 감소(22억8000만달러→19억4000만달러)했다. 7월중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원·달러, 원·엔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기재부는 "소비·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고 수출 개선세도 견고하지 못하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 러시아 제재와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기재위의 한은, 국세청 국감 예상 쟁점

국세청	1 세수실적 부진 및 체납정리
	2 세수실적 증대 방안
	3 조세불복 증가 등 무리한 징세행정
한국은행	1 금리인하 실기 여부
	2 금리인하 여부에 따른 정부 외압 논란
	3 경제성장률 전망 부실

내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로 연기할 듯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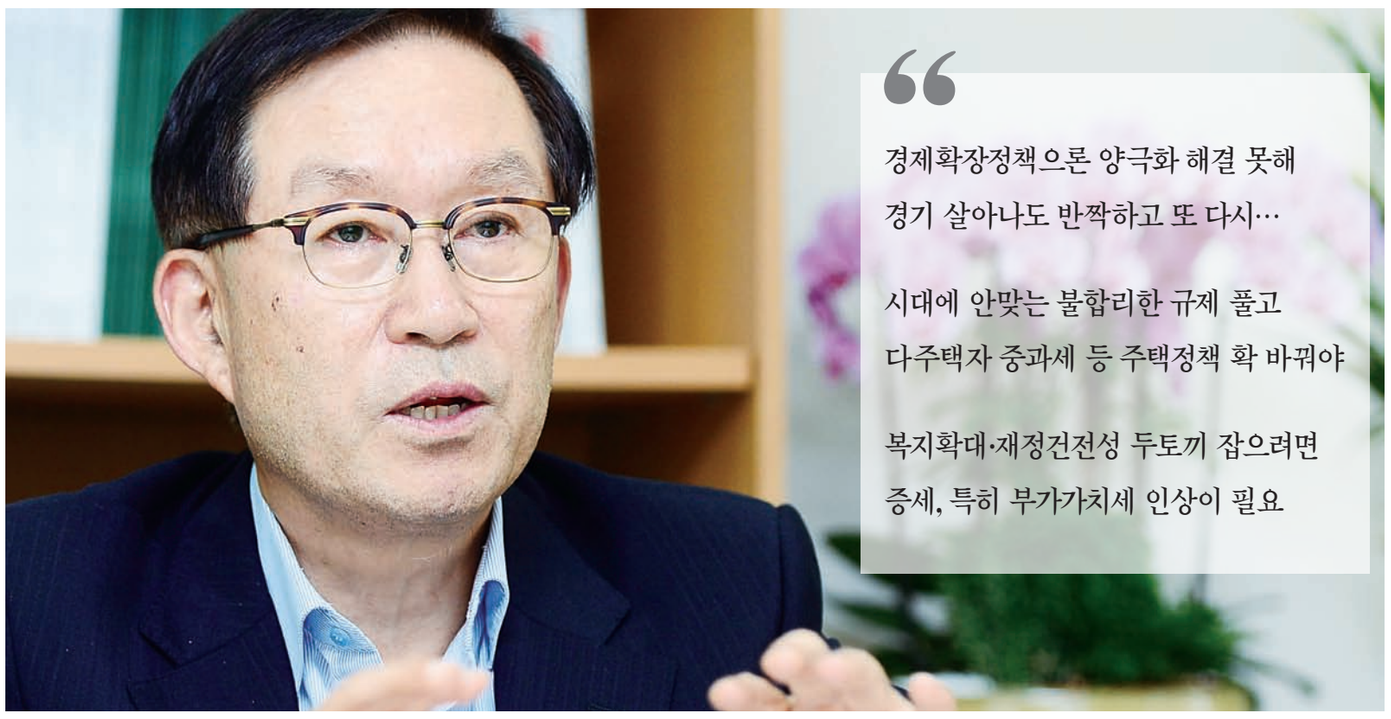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돈 푸는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구조혁신 급하다”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1부 우려되는 일본식 불황
2부 이것이 문제다
3부 이렇게 풀자
①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경제확장정책으론 양극화 해결 못해
경기 살아나도 반짝하고 또 다시…

시대에 안맞는 불합리한 규제 풀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주택정책 확 바꿔야

복지확대·재정건전성 두토끼 잡으려면
증세,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

재정 전문가이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건넨 조언이다.

최 원장은 최근 여의도 NSI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재정건전포럼 대표도 겸하고 있는 그는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증세,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우리 경제엔 경제순환적인 데서 오는 어려움과 구조적인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고 양극화가 심화돼 경제순환적인 재정확장 정책도 필요하지만 경기부양만 갖곤 안 된다. 돈만 푼다고 우리 경제가 2, 3년 안에 해결되겠나. 노령화나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돈 풀고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반짝하고 또 마찬가지다. 결국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놔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찬반이 엇갈리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얼마로 풀라고 할 게 아니라 규제는 금융기관이 하도록 맡겨 푸는 게 맞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푸는 건 곤란하지만 규제는 풀어야 한다. 현재 여건에 안 맞고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예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로 처음부터 잘못됐다. 시장논리에도 안 맞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안 맞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거나 수요를 줄어야 하는데 가격규제하면 공급은 줄어들고, 이중가격 되면 수요는 느는데 이게 어찌 대책이 되나. 내가 건교부 장관 시절 반대해서 그때는 입법이 안됐는데, 지금도 일부 정당에서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한 번 확 바꿔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시절 만들어놓은 다주택자 중과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금 보면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다. 임대수요 늘어서 공급이 모자라 전세, 월세 난리지 않나. 다주택 임대사업자엔 지원을 해야지, 페널티를 매긴다는 건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얘기다. 지금도 주택임대업은 수익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 외국에선 법인들도 임대사업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넘쳐도 대기업들이 임대사업을 안하잖나. 임대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대책까지 해줘야 한다.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업체 등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서민 일자리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경제 분야에서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결국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다하려고 하는 걸 고쳐야 한다. 각 부처와 공기업 인사들을 청와대 몇 사람들이 다 알 방법이 없다. 또 어느 부처나 그 아래 공기업이 잘못되면 부처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도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장관이 한 달 공백이면 부처도 한 달, 국장이 없으면 그 부서도 한 달 공백인 건데 도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출범하고 세월만 갔지 일 안하는 부서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정부의 결정이 안 나니, 호텔 짓겠다는 기업도 돈보따리 들고 기다리고 그 아래 하청업체도 줄줄이, 민간도 마냥 기다리게 된다. 경제활성화는 가까운 데서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주는 데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는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양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으로는 담판해도, 경제문제 갖고는 마주앉아 논의조차 하는 게 없다. 이젠 행정부가 국회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정부의 몫도 있지만 국회가 경제에 관심을 갖고 빨리 (법안들을) 해결해줘야 한다.”

△재정건정성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추경을 안 한 건 잘한 일이다. 추경 편성하면 국회로 오면 9월 말~10월 초 통과되는데 결국은 11, 12월 한두 달 쓰는 거다. 또 효과 있으려면 왕창 5조~10조원 풀어야 하는데, 그 돈은 SOC(사회간접자본) 외엔 쓸 방법도 없다. 재정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로 한번 빌트인이 되면 후퇴 없이 영속되는 것들이다.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이 들어가니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증세 논란엔 어떤 입장인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 정도로, 30% 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사회 양극화나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능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해야 할 시기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한데 많은 사람들이 증세 얘기하면 맨날 법인세, 소득세만 얘기한다. 부가세를 성역처럼 제외할 게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둬야 한다. 법인세는 세계적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다른 나라도 다 내리지,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가버린다. 소득세는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안내고 있는데, 나머지 60%에게서 더 걷는다 해도 금액으로 치면 의미있을 정도로 걷히겠나. 부가세율의 경우 우리는 10%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8%이고, 고복지하는 덴마크나 스웨덴은 25% 정도다. 간접세를 그렇게 걷어 소득분배 개선 쪽으로 쓰면 효과도 충분히 난다.”

△‘신국가 개조론’의 저자로서 ‘국가개조’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지난 6월 NSI와 건전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내가 ‘국가개조 10대 제안’을 했다. 우선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김영란법도 통과시키고 규제개혁, 재정준칙 제정도 해야 한다. 감사원 기능 조정, 공기업·정부산하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출산장려시책 강화와 이민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도 필요하다.”

인터뷰 = 김경철 경제국장
정리 = 김미영 기자 bomnal@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경제정책통…6년전 ‘신국가개조론’ 설파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았고,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강원 강릉 출신으로 스스로를 ‘감자바우’라 칭하는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으로 중용되긴 했지만 정치·이념 성향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다. 30여년 몸담은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경기 안양 동안갑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도 했다.

낙선한 그는 같은 해 ‘침체 한국경제를 위한 정통 관료의 대제안’이란 부제가 붙은 ‘신(新)국가개조론’이란 책을 펴낸다.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천명하기 6년 전에 이미 국가개조 필요성을 설파한 셈이다.

그는 책에서 ‘정부 만능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론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 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몸집 줄어든 저축銀, 내실은 커졌다

2분기 238억 순이익… 6년 만에 흑자 전환
총 자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조 줄어들어

저축은행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자산 규모는 2010년 12월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엔 36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덩치는 줄어든 대신, 내실은 강화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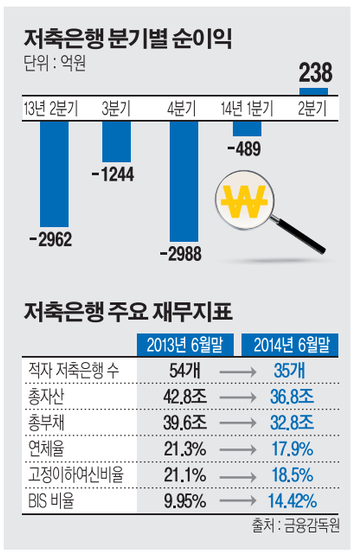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전년(1조1051억원)보다 60%(6500억원) 가까이 줄어든 4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분기별로 보면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지난해 7~9월엔 1244억원, 10~12월 2988억원, 올해 1~3월 489억원의 순손실을 봤지만, 올 4~6월에는 2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올해 6월 17.9%로 떨어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1%에서 18.5%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 부실채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95%에서 14.42%로 4.47%p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2014회계연도는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 회계연도에 적자 저축은행은 35곳으로 전년도 54개사에서 19곳이 흑자로 돌아섰다.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이나 됐다. 이들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 대주주가 개인인 중소형 저축은행들로 자산을 늘리기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다는 분석이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로 개인 소유이면서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하인 저축은행은 영업규모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 취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꾸준한 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 규모는 쪼그라들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저축은행업계의 총자산은 36조8000억원으로 1년 전(42조 8000억원) 대비 6조원(14.0%) 줄었다. 자산운용처 부재로 자금조달이 축소돼 현금 및 예치금과 대출금이 각각 2조4000억원,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에 따라 9월부터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중금리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중앙회는 표준 CSS를 구축해 저축은행들에 공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 업계와 공동으로 KT-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 방지 방안,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30년 만에 교황 오신다" 특판 마케팅 나선 은행들

하나銀, 기부금 테마상품 판매
우리銀, 시복식 모자·우산 제작
한은, 기념 주화 9만장 발행도

30년 만에 진행되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은행권이 특판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천주교 산하'바보의 나눔'재단에 기부하는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 3종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통장, 적금, 체크카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됐으며, 가입 좌수당 100원씩을 은행이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한다. 7월 말 기준 바보의 나눔 적금 잔액은 1조2000억원, 바보의 나눔통장은 1144억원에 이른다.

천주교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도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해 은행 로고가 찍힌 모자 50만개와 우산 1000개를 제작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천주교구 16곳 가운데 서울 등 7개 교구의 주거래은행을 맡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천주교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 보다는 작은 기부와 정성 차원에서 마케팅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상품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황 방한 기념 특판상품 '사랑나눔 특별예금 및 적금'을 판매한다. 이번 특별상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으로 각각 500억원 한도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고객에 한해 1년제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2.50%, 정기적금은 연 2.90%까지 적용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총 2660만원 한도로 이 상품 판매 금액의 0.1%을 사랑나눔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교황방한 기념 주화를 발행한다. 기념주화는 은화 1종류와 황동화 1종류로 은화 3만장, 황동화 6만장 등 최대 9만장을 발행 할 예정이다. 이중 국내 판매분은 은화 2만 7000장, 황동화 5만 4000장이다. 주화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황 방한 행사이다보니 천주교와 관련된 은행들이 직간접적 마케팅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중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수출입은행, 글로벌본드 10억달러 규모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6일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행한 채권은 5년, 12년 만기 각각 5억달러로 구성됐으며,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각각 0.725% 포인트와 0.85%포인트에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 금리는 수은과 신용등급이 동일한 중국수출입은행이 지난 7월 말 발행한 달러화채권에 비해 0.175~0.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날 수은의 채권발행에는 총 270개 투자자가 참여해 발행금액의 약 4.2배에 달하는 42억달러의 투자 주문이 쇄도했다. 투자자를 지역별(투자자 배정기준)로 보면 5년 만기의 경우 아시아 56%, 미국 23%, 유럽 21%이며, 12년 만기의 경우 아시아 70%, 미국 18%, 유럽 12% 등의 분포를 보였다.

수은은 이번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외화자금을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등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와 고용 효과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오늘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마이핀(My-PIN)'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단이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6일 오후 서울 구로3동주민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시민들에게 마이핀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KB국민카드, 카드론 수수료 내린다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10월엔 현금서비스·리볼빙 적용

KB국민카드가 카드 금융상품 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9월30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KB국민카드의 카드론 수수료율은 종전 연 6.90~26.50%에서 연 6.50%~25.80%로 최저 수수료율은 0.40%p, 최고 수수료율은 0.70%p 낮아지는 등 수수료율이 평균 약 0.50%p 인하된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기존 연 7.80~27.90%에서 연 6.50~27.40%로 최저 수수료율은 1.30%p, 최고 수수료율은 0.50%p 낮아지는 등 평균 약 0.34%p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전산 개발과 고객 안내 등을 거쳐 카드론은 9월30일부터,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현금서비스는 10월31일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 금융상품 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상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화손보 설계사 정착률 업계 최고

50% 육박… 조직 확대 계획

한화손해보험의 설계사 정착률이 업계 최고 수준인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보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사 조직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손보 설계사 13월차 정착률은 48.5%로 FY2012년 43.0%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 설계사 평균 정착률이 2.4%포인트 하락하고 삼성화재·동부화재가 각각 8.3%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한 만한 수치다.

설계사 13월차 정착률은 등록 이후 13월차에 설계사 본인 모집계약이 10건 이상 이거나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 5건 이상인 인원 기준으로 보험사 영업채널의 중요한 지표다.

한화손보 설계사 13월차 정착률은 △FY2008년 37.7%(업계 평균 44.3%) △FY2009년 38.1%(업계 평균 47.0%) △FY2010년 38.4%(업계 평균 46.1%) △FY2011년 37.9%(업계 평균 45.6%)로 전속 채널의 경쟁력이 취약했다.

낮은 정착률 때문에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설계사 정착률 향상이 2011년 말 점포 영업의 화두로 떠오를 정도였다.

이에 한화손보는 설계사 기준 연령을 27~30세로 높이고, 50세 이상은 별도 심사를 받게하는 등 설계사 이탈을 막기 위한 위촉 심사제를 도입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11년 1월 5800명에 불과했던 한화손보 설계사는 2012년 6월 6100명에 이어 현재 7500명이 넘는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는 월 300명의 신규 설계사를 채용했다. 최근에는 설계사 선별 위촉 기준을 완화해 기준 연령을 24세로 낮추고 60대 초반 인력도 뽑고 있다.
강구귀 기자 kkk@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able Card

카드생활의 Remake Asset
카드생활에서부터 자산관리가 시작됩니다



할인 서비스 4가지 중 내가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 선택1)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 캐쉬백 16배 적립(80원/L)
- 선택2) 대형할인점 15% 할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 선택3) 백화점 15% 할인(현대,신세계,갤러리아,롯데)
- 선택4) 전국택시/KTX 15% 할인

※연 4회 변경 가능, 선택 1~4)별 월간할인한도 이외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 한도 차등 적용
※15% 할인의 경우 횟수(일/월) 및 최대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출금,이체,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당사 및 타사 이체 수수료 무료
- 당사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지점 창구 송금 수수료 무료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적용

포인트 서비스 OK캐쉬백 포인트와 함께 재 탄생한 able point!
- 현대증권 포인트와 OK캐쉬백 포인트가 합산되어 사용 및 적립되는 포인트제도
- OK캐쉬백 포인트를 CMA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현금상환서비스
- able point는 전국 45,000여 개의 OK캐쉬백 가맹점, able 포인트몰, 현대증권 업무수수료로 결제 가능

특별 서비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입히다!
- 전국 50여개의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현장 할인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며, 사업장 별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카드문의 : 1588-6611 홈페이지 : www.hdable.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455호(2014년 2월 6일~2015년 1월 23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현대증권

‘G3 삼각편대’ LG 스마트폰 라인업 재편

프리미엄폰 ‘G3’·보급형 모델 ‘G3 비트’ 이어
5.9인치 패블릿 ‘G3 스타일러스’ 이달 출시
내달 출시 ‘갤노트4’ ‘아이폰6’와 글로벌 경쟁



LG전자가 ‘G3’시리즈 삼각편대를 구성하며 스마트폰 사업 강화를 향한 닻을 올렸다.

LG전자는 4대 3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던 ‘뷰’ 시리즈에 이어, 5.9인치 대화면에 G3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패블릿 ‘G3 스타일러스’로 승부수를 던진다.

G3 스타일러스는 5.9인치 디스플레이, 쿼컴 스냅드래곤 805 프로세서 탑재가 유력하다. 스타일러스를 내장해 자유로운 필기입력이 가능한 G3 스타일러스는 이르면 이달 중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제품은 다음달 3일 공개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다. 갤럭시노트4는 5.7인치 QHD 해상도 AMOLE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스5433 또는 스냅드래곤805 프로세서, 3GB 램, 1600만 화소 후면카메라 등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LG전자는 프리미엄(G3), 보급형(G3 비트), 패블릿(G3 스타일러스) 라인업을 모두 갖추면서 스마트폰 시장 경쟁력을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사업부는 올해 2분기에 145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분기 기준으로 1400만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E 스마트폰 판매량의 경우 515만대를 기록했다. 전분기 500만대보다 4% 성장한 역대 최대 판매량이다. 또 전년 동기 230만대 대비 12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 역시 G3를 포함한 G시리즈가 LTE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휴대폰 전체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900만대를 달성했다.

MC본부는 2분기에 매출 3조6203억원, 영업이익 859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이후 거의 1년만에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삼성(갤럭시노트4), 애플(아이폰6) 모두 신제품을 내놓는 시기에 LG전자도 패블릿(G3 스타일러스)을 출시하게 됐다”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G3 시리즈와 삼성-LG-애플간 제품 경쟁을 흥미롭게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전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홍보전 돌입 삼성전자가 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우리의 게임, 우리의 자부심’을 캠페인 테마로 정한 삼성전자는 대회기간 동안 △팀 삼성 △삼성 소셜 캐스터 △삼성 MVP 어워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또 혁신 기술과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우본, 알뜰폰 사업자 재선정 ‘미적미적’

기존업체 계약 다음달 말 종료
신규 입점 관련 논의조차 없어

다음달 우체국 알뜰폰 수탁판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주체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정작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본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체국 입점을 노리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7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우체국 알뜰폰 사업의 당사자인 우본은 아직 구체적인 안도 마련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체국 알뜰폰은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등 6개 중소 알뜰폰 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의 입점기한은 오는 9월27일까지로, 우본은 입점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기준이나 일정을 내놓지 않아 우체국 입점을 노리는 알뜰폰 업체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에 입점하려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은데 우본과 알뜰폰 협회는 관련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지한 적이 없다”며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형평성 있게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우체국 알뜰폰 사업은 시범사업 이라는 명목하에 협회가 끝장토론을 통해 입점 기준 등을 우본에 넘겼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6개 업체를 선택했다.

이번 입점업체 선정을 앞두고 우본과 알뜰폰 협회는 이날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의견교환도 없었다. 김범근 기자 nova@

밴드 게임들 ‘카카오 품으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이 야심차게 선보인 밴드 게임이 카카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밴드의 가장 인기있는 ‘역전! 맞짱탁구’와 ‘라바링크’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아프리카TV는 최근 밴드게임으로 출시된 이들 게임을 카카오톡 버전으로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넥슨도 밴드 게임 ‘영웅의 군단’을 지난달 말 카카오톡 게임으로 출시했고, 라쿤소프트의 ‘퍼즐푸’ 역시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 된다.

이들 게임은 밴드 서비스 초기 함께 출시됐다는 점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이 밴드의 수익성에 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역전! 맞짱탁구’ ‘라바링크’ 인기작들 ‘카톡 버전’ 출시
“밴드 수익성 기대 못 미쳐” 게임사 ‘탈밴드’ 바람 거세

밴드는 카카오 게임을 따라잡기 위해 게임등록 수수료를 낮추고, 개발사들이 밴드 게임에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도록 무심사 입점을 원칙으로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밴드 게임은 출시초기 모바일게임 유통창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며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밴드 게임하기는 지난 6월 12일 게임 10종을 갖추고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후 같은 달 2차로 10종의 게임을 추가했다. 오픈 초반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건을 기록하고 게임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 밴드 게임을 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밴드 게임 서비스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밴드 게임이 카카오톡보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두 플랫폼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게임사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캠프모바일 측은 “캠프모바일의 집중 키워드는 글로벌이고, 게임은 밴드 유저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나 재미를 주기 위한 부가 서비스”라며 “밴드 본연의 플랫폼에 피로도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게임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흥행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무료 인기게임 순위 100위권 내에 밴드 게임은 '퍼즐이냥 with BAND'(67위)가 유일해 밴드 게임이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헌 기자 119@

수입 철강재, 시장 점유율 39.8%… 중국산 수입 급증

수입 철강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재 명목소비 대비 수입재 비중은 39.8%(1121만톤)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2011년 상반기 4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산 점유율은 작년 하반기 37.1%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1~7월 철강재 수입량은 1309만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다. 이중 중국산은 763만톤으로 31.2% 늘었으며 일본산은 422만톤으로 7.7% 감소했다.

철강협회는 저질 수입 철강재, 국산 둔갑 수입품이 국내 유통시장을 어지럽힌다고 판단하고 최근 비상대책반을 구성,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국GM ‘임팔라’ 내년 초 수입 판매

국내 생산라인은 초긴장

현재 부평2공장서 생산 중인
동급모델 ‘알페온’ 단종 예상
신형크루즈 생산시기 불투명


GM ‘임팔라’

한국지엠이 올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신형 크루즈의 군산공장 생산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처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형 크루즈의 생산물량과 생산시기가 불투명한데다 향후 제네럴모터스(GM)의 ‘임팔라’가 수입 판매되면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는 ‘알페온’은 단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팔라를 내년 초 국내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정확한 시기와 수입 대상 모델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임팔라 2.4ℓ, 2.5ℓ 모델 도입이 유력하다.

한국지엠의 임팔라 도입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GM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 역시 알페온 판매가 크게 줄면서 대형세단 신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페온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 3921대로 전년 7008대와 비교할 때 44.0% 줄어들었다.

그러나 알페온이 임팔라로 대체돼 단종되면 부평공장의 생산규모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는 알페온을 비롯 캡티바와 말리부를, 부평1공장에서는 트랙스와 아베오를 생산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임단협에서 신형 크루즈의 군산공장 생산을 포함, 2016년 아베오 부분변경 모델 생산, 캡티바의 생산 연장 등의 미래 계획을 내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에 7만3243대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EU 수출 물량인 12만3438대에 비해 40.7% 감소한 수치다. EU 수출 물량이 반토막나는 상황에서 알페온이 단종되면 부평공장의 생산물량 감소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신형 크루즈의 생산시기도 아직 불투명하다. 업계는 현재 판매되는 크루즈가 2009년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GM은 2015년 말이 되어야 신형 크루즈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군산공장에서 신형 크루즈를 생산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시기나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쉐보레의 유럽 철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33만1509대 생산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4354대에 비해 18.0%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전체 생산물량은 지난해 78만2721대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60만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신형 크루즈의 2015년 이후 생산과 쉐보레 유럽 수출의 2015년 말 중단을 감안하면, 내년은 한국지엠에게 생산 물량의 ‘보릿고개’를 맞게 될 우려가 크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수입차, 끝모를 ‘흥행질주’

누적점유율 14% ‘역대 최대’… 월 최대판매 기록도 4차례나

지난달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한 수입차의 올해 국내시장 누적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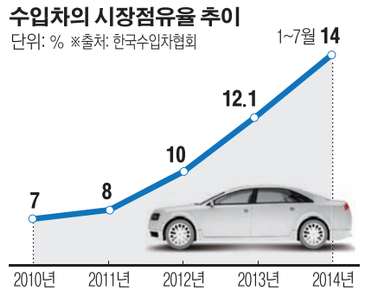
7일 한국수입차협회가 발표한 올해 1~7월 국내 판매량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 5개사의 승용차 판매를 합산해 수입차의 누적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14.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인 12.0%보다 2.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6.9%, 2011년 8.0%, 2012년 10.0%, 2013년 12.1%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

수입차의 올해 연간 기준 시장점유율 15% 이상을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수입차는 올 한 해 월간 기준으로 4번이나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3월 1만5733대를 국내에 판매하며 처음으로 월 1만5000대를 돌파하더니, 4월에는 1만6712대를 판매해 한 달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6월 1만7803대, 7월 1만8112대를 각각 판매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브랜드별로는 독일차의 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수입차협회



수입차 판매 1위 BMW는 올해 1~7월 2만3621대를 국내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9.5% 판매량이 늘었다. 이어 같은 기간 메르세데스-벤츠 1만9991대(전년비 40.5% 성장), 폭스바겐 1만8525대(36.6%), 아우디 1만6396대(46.7%), 포드 5204대(30.8%), 렉서스 3423대(10.1%), 닛산 2400대(40.4%)를 각각 판매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차는 모델이 다양하고 가격도 하락세여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며 “국내 업체의 인지도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입차는 중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NHN엔터, 2분기 영업손 73억 ‘적자전환’

NHN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분기 매출 1198억원, 영업손실 73억원, 순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서 주요 온라인게임의 이용자 감소세가 더해지면서 매출은 전분기 대비 21.3% 하락,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2분기 게임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이 675억원으로 60%, 모바일이 446억원으로 40%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국내 게임 매출이 634억원으로 57%를, 해외 게임 매출이 487억원으로 43%의 비중을 보였다.

PC온라인 매출은 전분기 대비 34.4% 줄었다. 모바일 매출은 신작들의 선전으로 전분기 대비 0.8%, 전년동기 대비 30.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는 “급격한 시장 변화와 규제 여파로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게임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유망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 119@



‘슈퍼푸드’ 체리·블루베리 여름 ‘국민과일’ 자리매김

워싱턴 체리

7월 수입 과일 중 41% 차지

매출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

하이부시블루베리

2012년 기준 세계 4위 수입국

작년보다 세 배 이상 판매 기대

복숭아와 수박 등 국산 과일이 차지하고 있는 여름철 ‘과일의 제왕’ 자리를 수입 과일 ‘블루베리’와 ‘체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몸에 좋은 슈퍼푸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루베리와 체리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입량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일 중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체리는 국내에서 7월과 8월에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다. 체리에는 케르세틴(qurcetin)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 두 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다. 체리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폐물의 증가를 억제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씨를 뺀 체리 100g에는 최고 300mg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는데, 이는 시력 저하를 방지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며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또 비타민C와 피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카로틴이 같은 무게 복숭아의 약 2.6배, 참외 약 26배 이상 함유돼 있다.

국내에서는 북서부 체리의 인기가 높다. 세계 체리 생산량의 70% 이상, 국내 수입량의 80% 이상이 미국 북서부의 5개 주(워싱턴·오리곤·아이다호·유타·몬태나)에서 생산된다. 일명 ‘워싱턴 체리’라고 불리는 미국 북서부 체리는 적절한 일조량, 시원한 밤 기온, 기름진 토양 등 날씨에 민감한 체리 재배의 최적 조건으로 월등한 당도와 맛을 자랑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북서부 체리는 2010년 2200톤, 2011년 3189톤, 2012년에는 5897톤으로 수입량이 매년 증가 추세다.

미국 북서부체리협회 박선민 이사는 “2013년에는 현지 체리 생산량이 줄어 4462톤으로 수입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아 7월의 국내 수입 과일 중 체리의 매출 구성비가 41.5%로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매출 신장률 역시 101.5%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여름 과일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베리의 위세도 대단하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구성하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각종 암 예방은 물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콩 알만한 과일에 비타민C와 E, 칼슘, 철, 망간 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무려 18종이나 들어 있다. 보라색 영양제인 셈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블루베리는 미국 하이부시블루베리다. 미국 하이부시블루베리는 적절한 일조량, 산성 토양, 꿀벌을 통한 수분 등의 조건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재배된다. 미국 38개 주와 캐나다 등이 세계 블루베리의 90% 정도를 공급한다.

미국 하이부시블루베리는 2012년 기준 한국이 세계 4위 수입국이다. 작년에 생과, 냉동, 파우더 등 미국산 블루베리가 총 4113만145kg 수입됐다. 이 중 생과 블루베리는 2012년에 처음 수입돼 첫 해 68만4025kg, 2013년에는 1244만891kg으로 두 배 이상 물량이 늘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판매 신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하이부시블루베리협회 신혜원 과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며 “블루베리는 생과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즌인 7~9월에 하이부시블루베리의 인기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광고도 안했는데… ‘동원몰’ 소리 없이 인기

동원F&B 직영… 가입회원 5만명

경쟁사 제품까지 1000여가지 갖춰



회원수 50만명. 하루 2만명 방문.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 얘기가 아니다. 식품 전문기업이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고 고공행진 중이다. 특별한 마케팅이나 광고도 내보내지 않았지만 식품기업 특유의 노하우를 온라인 쇼핑에 접목시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오픈한 ‘동원몰’은 종합건강 식품회사인 동원F&B가 운영하는 식품전문 쇼핑몰이다. 동원몰은 동원F&B, 동원산업, 동원홈푸드 등 동원그룹 관련 1000가지가 넘는 식품과 식자재를 판매한다. 물론 동원 제품만 있는 건 아니다. 경쟁사의 식품이나 생활·주방용품, 유아동 제품까지 총 7만여 종의 제품을 갖췄다.

규모에 걸맞게 동원몰은 현재 일일 방문자수 2만명, 회원수 50만명의 식품전문 쇼핑몰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 최근 3년간 매년 30% 이상 성장했고, 올해 약 1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는 다 이유가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 쇼핑의 편리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 국내 최대 규모의 냉장·냉동식품을 보유한 ‘싱싱냉동마트’, 소량 구매 합배송이 가능한 ‘합배송마트’, 큰 폭의 할인 혜택으로 알뜰 구매를 지원하는 ‘식품 아울렛 매장’ 등이 그것이다.

싱싱냉동마트는 동원그룹의 제품과 동원몰에서 직매입한 300여종의 다양한 상품과 코스트코 구매대행 상품 200여종을 구비했다.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 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을 함께 배송해 필요한 만큼 알뜰구매가 가능하다. 배송 시간도 미리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려 주고, 3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집 앞까지 배송해준다.

합배송마트는 냉동·냉장식품 외 제품들의 합배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한 제품만 소량씩 구매하더라도 합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식품 아울렛 매장은 무엇보다 싼 게 강점이다. 대형마트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명제조사 제품들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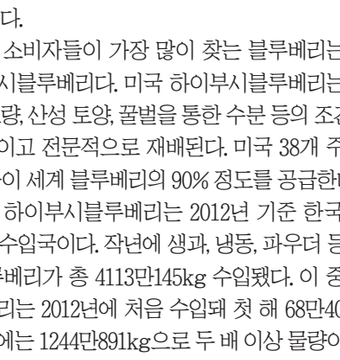
동원F&B 온라인사업부 강용수 상무는 “동원몰은 주력 사업인 식품 브랜드를 기반으로 향후 커피, 애완용품 등 전문상품 특화매장을 추가 확대해 ‘생활 전문 쇼핑몰’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롯데마트 ‘통큰 비타민’ 잘나가네

마트 최초로 출시… 130일 만에 7만개 팔려

유통단계 최소화… 유명브랜드 3분의 1 가격



롯데마트가 지난 3월 대형마트 최초로 출시한 ‘통큰 비타민’의 인기가 뜨겁다. 출시 넉 달 만에 7만개가 팔리면서 국내 비타민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것.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통큰 비타민은 지난 3월 27일 출시 이후 8월 3일까지 130일 동안 총 7만개 이상 판매됐다. 함께 선보인 ‘통큰 오메가3’도 3만개 이상 팔려 해당 상품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판매량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전체 비타민(200개 품목)과 오메가3(19개 품목)의 평균 판매수량(130일간)보다 각각 60배, 12배 많은 수준이다. 상품군 내 해당 품목의 매출 구성비 역시 ‘통큰 비타민’은 전체 비타민 중 22%가량, ‘통큰 오메가3’는 72%가량을 차지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 출시 후 롯데마트의 비타민 매출(3월 27일~8월 3일)은 전년 동기보다 16.6%, 오메가3 매출은 356.1%가량 각각 신장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 상승에도 기여했다.

롯데마트는 인기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과 기존 유명 브랜드 건강기능 식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롯데마트는 건강식품 제조 전문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광고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줄이는 노력으로 시중 유명 브랜드 대비 반의 반값 수준으로 출시했다. 가격은 ‘통큰 비타민’이 1만5000원(360g·180정)이며, ‘통큰 오메가3’는 2만원(216g·180캡슐)에 불과하다.

전훈휘 롯데마트 건강식품MD(상품기획자)는 “개발 단계부터 가격, 원산지, 성분 등 고객을 위한 맞춤 상품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강기능 상품 카테고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올림픽 기대 컸나…강원 토지시장 '잠잠'

평창·강릉·정선 3조3000억 투입 특구개발에도 거래 제자리

"급매물만 간간히 거래"… 양도세 감면 등 규제 완화 목소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훈풍이 예상되던 강원도 토지시장에 찬바람만 불고 있다.

평창군이 올림픽 특구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눈에 띌 만한 '올림픽 특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7일 강원도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민자 사업자가 주도하는 특구사업 시행자가 속속 확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는 개최 도시인 평창, 강릉, 정선 등 3개 시·군 27.4㎢에 걸쳐 조성된다.

이 사업은 2단계에 걸쳐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도시경관·생활 인프라·관광 레저 등 40개 사업에 총사업비 3조306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높았던 곳은 평창이었다.

평창의 지가 상승률은 1.914%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254개 시·군·구 중 상승률 13위이다.

강릉 땅값 역시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55개월 연속 올랐다. 이 기간 상승률은 6.22%에 달했다.

올해도 강릉과 평창의 부동산시장은 관련 사업의 시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이 일대 토지시장은 울상이다.

평창 소재 A부동산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로 개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으나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어 거래가 없다"며 "귀농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만 간혹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릉 소재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가격만 조금 오르고 거래는 없다"며 "개발로 보상 받은 사람들이 땅을 사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털어놨다.

정선에 있는 E부동산 측은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면서 "문의 전화는 오고 있는데 보통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법 등 토지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강원도 일대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양도세로 35%를 내고 있고 내년부터 10%가 더해져 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오히려 양도세를 2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세법이 바뀌어야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지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겨져야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지방 혁신도시 분양 물량

분양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처: 부동산써브

분양 시기	위치	총 가구수	전용면적(㎡)	시공사
9월	강원원주혁신 A-2블록(공공임대)	756	51~59	LH
10월	강원원주혁신 C-2블록	850	84~131	중흥종합건설
하반기	강원원주혁신 B-6블록(민간임대)	626	60~85	부영
하반기	강원원주혁신 B-7블록(민간임대)	920	60~85	부영
11월	경남진주혁신 A2블록	422	60~85	라온건설
12월	광주전남혁신 B3-1블록	400	59~84	EG건설
하반기	광주전남혁신 B-1블록(민간임대)	1478	60~85	부영
10월	전주완주혁신 B-15블록(공공임대)	606	84	전북개발공사



'흥행 보증수표' 지방 혁신도시 하반기 6000여가구 쏟아진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요자 인기

상반기 1순위 마감률 50% 기록

8곳서 공공·민간임대 등 공급

강원원주 3152가구로 '최다'

경남진주·광주전남 등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 혁신도시 물량이 주목받고 있다.

혁신도시 소재 물량은 올해 1순위 마감률이 50%대를 기록했다. 또 연내 6000여가구가 분양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공공·민간임대 포함) 물량은 8개 단지 총 6058가구다.

강원원주혁신도시가 4개 단지 315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진주혁신도시 1개 단지 422가구, 광주전남혁신도시 2개 단지 1878가구, 전주완주혁신도시 1개 단지 606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 혁신도시 분양 물량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 및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분양된 지방 혁신도시 물량은 총 16개 단지 9639가구로 이 중 8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분양된 2개 단지 중 1개 단지 꼴로 1순위 마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8개 단지 중 4개는 3순위 마감됐고 미달된 단지는 4개에 불과했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에 A-2블록에서 전용면적 51~59㎡ 총 756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중흥종합건설이 10월에 C-2블록에서 전용면적 84~131㎡ 총 850가구를 분양하며 부영이 하반기에 B-6·7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로 각각 626가구와 920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강원원주혁신도시에는 총 수용인구 3만887명(1만1881가구)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는 라온건설이 11월에 A2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총 422가구를 분양한다. 이 곳은 수용인구 3만9000여명(1만3000가구)이 거주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EG건설이 12월에 B3-1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총 4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부영도 하반기에 B-1블록에서 전용면적 60~85㎡ 총 1478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완주혁신도시에서는 전북개발공사가 10월에 B-15블록에서 전용면적 84㎡ 총 606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앞으로 지방에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가 지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시가 완성되면 단지별 입지가 중요해지는 만큼 주변 여건과 분양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포스코건설 '펜타힐즈 더샵' 조감도.

'경산 펜타힐즈 더샵' 분양

포스코건설, 1696가구 공급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내 C3블록에 총 1696가구로 구성된 '펜타힐즈 더샵'(가칭)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산시 중산동, 옥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펜타힐즈'는 1970~80년대는 제일합섬, 1990년대는 새한 공장부지로 사용했던 터로 대구·경북권역의 핵심 요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향후 이곳은 7000여가구의 아파트와 다양한 상업·문화·공원·교육 시설 및 자연이 어우러진 대구·경북권역을 대표하는 주거중심의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펜타힐즈 더샵'은 지하 2층,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총 1696가구로 전용면적 63~113㎡으로 구성되며, 이 중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이 1560가구로 전체 물량의 92%에 해당한다.

'펜타힐즈 더샵'의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며 9월 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053-795-7200 박태진 기자 tjpippo@

현대건설, 사우디 최대 변전소 공사 수주

2569억 규모… 일괄도급 진행

송배전망 확충 추가 수주 기대

현대건설이 최근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발주한 2억4800만 달러(원화 약 2569억) 규모의 380kV 변전소 신규 건설 공사 및 기존 변전소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사우디 내 단일 변전소로는 최대 규모이며 사우디 동부 주베일 산업단지 지역에 380·230·115kV의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를 개보수하는 공사이다.

이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설계·구매·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도급 공사로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총 27개월로 2016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977년 사우디 송·변전 시장에 첫 진출한 이래 약 70여건의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성을 높여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우디에서 변전소와 송전선, 알루미나 제련소와 실내 경기장 등 총 13건(미화 3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지은 알사나빌 변전소의 모습. 사진제공 현대건설

이번 공사 또한 사우디에서 수행 중인 유사 공사의 우수한 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수주하게 됐다.

사우디 전력청에 의하면 현재 최대 전력수요는 51.9GW이며 2020년 85GW, 2030년 120GW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해 2023년까지 40GW의 발전용량 증설과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약 1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수주한 공사를 계기로 향후 변전소와 송전선 건설 공사에서의 수주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건설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총 156건(80억 달러 규모)의 송·변전 공사를 수행하며 송·변전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건설업체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KCC건설, 967억 규모 해운대 주택재개발

KCC건설은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967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KCC건설 매출액의 8.87%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38-3 일대에 569세대의 아파트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문의 02-332-4103 블로그 blog.naver.com/gadian7
가디언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공부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시작하라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커지면 돈은 제 발로 들어온다

평생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돈이란 월급받아 알뜰하게 저축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대학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따르는 부자에게 배워라.
그러나 부자가 가르쳐주지 않거든 이 책에서 배워라.

- 맨손으로 1000억 번 부자들의 공통점을 분석 통찰한 책 _머니투데이
-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돈과 부자'에 대해 공부했는지가 결정한다 _한국경제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 권성희 지음 | 324쪽 | 값 15,000원

1% 부자들의 탈무드 실천법



- 부자의 줄에 서라
- 이웃에게 밥을 사라
- 지혜를 먼저 구하라
- 돈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마라
- 이익의 절반을 가지려면 사업을 시작하라
- 신용이 최고의 화폐다

유대인의 비즈니스는 침대에서 시작된다
테시마 유로 지음 · 한양심 옮김 | 272쪽 | 값 13,500원

"고수익 프런티어마켓, 리스크에 취약"

올 들어 2조원 이상 유입…MSCI 지수 19%나 올라
"유동성 약해 갑작스런 매도세에 타격 불가피" 우려

신흥시장보다 요즘 더 뜨는 시장이 있다. 바로 프런티어마켓이다.

최근 높은 수익률로 프런티어마켓이 주목받으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이 유입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다. 대형 헤지펀드를 비롯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프런티어 마켓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투자과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프런티어마켓은 신흥시장 중의 신흥시장을 일컫는다. 이미 투자자들에게 상당 부분 노출된 신흥시장에 비해 블루오션이 많아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을 비롯한 프런티어마켓 국가로 유입된 자금이 22억 달러(약 2조27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난 10년간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사촌격'인 신흥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7억2000만 달러(약 7400억원)가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 흐름의 판도가 바뀐 것은 지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MSCI프런티어마켓지수는 19% 올랐다. MSCI신흥시장지수는 6%, 선진국 증시를 나타내는 MSCI세계지수가 2.2% 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다.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는 미국과 유럽시장은 물론 일부 신흥시장은 최근 몇 주 사이 이런 현금 유입이 흔들리고 있지만 프런티어 마켓의 현금 유입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케말 아흐메드 인베스텍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10년간 신흥시장이 보여왔던 고성장세를 잡아보려는 투자자들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런티어마켓에 막대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이 지역의 투자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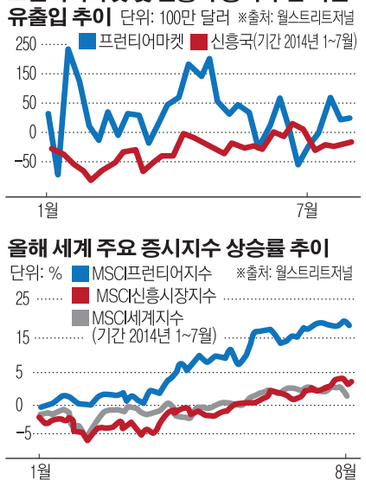
당장은 현금 유입이 물밑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두텁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이뤄진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들은 또 프런티어마켓의 성장세가 올해 전반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일부 국가가 프런티어마켓 울타리를 벗어나는 등 시장 구성원의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 5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를 프런티어에서 신흥시장으로 편입시켰다. 이 영향으로 프런티어마켓 구성원 숫자는 줄었지만 대신 남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해외 투자금은 더 커지게 됐다.

토마스 베스터 LGM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FO)는 "고수익을 좇다가 분별력 없이 아무 회사에나 투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프런티어마켓 및 신흥국 증시 주간 자본 유출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올해 세계 주요 증시지수 상승률 추이

中 MS 2차단속… 또 美기업 때리기

반독점법 위반 혐의… 방문조사
사이버보안 이유로 IT업계 압박

'주식회사 미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관계자들은 현지 마이크로소프트(MS) 사무소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실시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AIC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베이징 랴오닝 푸젠 허베이의 MS 사무소를 전격 방문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SAIC는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SAIC는 MS의 금융 외주업체인 글로벌 컨설팅기관 엑센추어의 사무실도 방문해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MS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SAIC의 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SAIC는 지난해 6월부터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해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4곳의 MS 중국 사무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업계에서는 MS의 중국 사업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SAIC의 이번 조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등의 이유로 최근 미국 첨단기술기업들을 조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반독점법 위반 단속보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MS가 오는 9월 게임콘솔 'X박스원'의 중국 판매를 앞두고 있는 등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조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서 MS의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 스토리지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공공기관의 새로운 PC에 윈도8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애플의 아이패드와 맥북 등 10여 개 모델도 중국 정부의 조달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는 보안을 이유로 한 외국 IT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또 이날 폭스바겐의 아우디와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그리고 일본의 10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에 의거해 메드존슨뉴트리션과 다농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퀄컴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서방의 대표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안방 스마트폰 점령 샤오미 내친김에 글로벌시장 '진격'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의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샤오미가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CNN머니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 2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4%를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샤오미는 삼성 애플 화웨이 레노버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량의 97%를 중국에서 판매하는 샤오미는 올해 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멕시코 러시아 태국 터키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샤오미의 판매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카 퀴 캐널리스 애널리스트는 "샤오미의 공격적인 가격 모델은 중국을 넘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수준으로 모델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국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샤오미와 삼성 레노버 유롱 화웨이 중에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는 삼성이 유일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특히 미국시장 공략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시장을 분석해보면 일반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노키아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LG와 소니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미국에서는 부진했다.

컴스코어에 따르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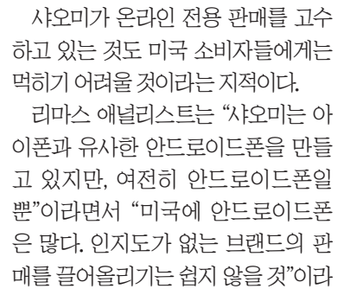
라몬 리마스 IDC 스마트폰 리서치 매니저는 "미국인들은 브랜드와 플랫폼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벤더를 위한 룸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샤오미가 온라인 전용 판매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먹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리마스 애널리스트는 "샤오미는 아이폰과 유사한 안드로이드폰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폰일 뿐"이라면서 "미국에 안드로이드폰은 많다.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의 판매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1억7000만대 규모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 블룸버그

2분기 中 시장점유율 1위
인니·멕시코·태국 터키 등
올해 해외시장 공략 박차
美는 진입장벽 높아 어려워

中企 회사채 만기도래 中기업 연말 디폴트?

1조380억원 규모…2년만에 최대

중국이 연말에 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수익·고위험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

이들 기업이 4분기 상환해야 할 회사채 규모가 62억 위안(약 1조380억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6월 민간 중소기업의 투자부적격등급채권(정크본드)시장 진입을 허용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의 건자재업체인 쉬저우중썬퉁하오는 지난 3월 만기가 들어온 이자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몰렸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간신히 디폴트를 면했다. 중국 초상증권은 다른 3개 기업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약 7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초상증권의 쑨빈빈 애널리스트는 "민간 채권시장이 직면한 리스크는 폭풍의 전조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많은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통신은 경고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현재 증시 상장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가 넘었다. 이는 지난 2007년보다 약 6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阿정상들과 나란히 선 오바마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단체 기념촬영에서 버락 오바마(왼쪽에서 4번째) 미국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통제 가능'하다고 밝히며 치료 실험 약물은 아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아프리카에 공급은 이르다고 말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러, 우크라 접경지역 병력증강

2만명 전투준비 태세… 무력개입 가능성 커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2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 준비가 된 2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또 이와 관련해 "인도적 또는 평화유지 임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하는 일은 중대한 문제라면서 "러시아의 병력 증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며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전방위적인 식품 금수 조치로 대응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이날부터 루마니아산 가축과 소고기, 고기뼈 분말 등의 수입을 잠정 금지했다.

러시아 연방 검역위생감독국은 독성물질 함유와 박테리아 오염 등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포트

구글, 모바일 앱 이뮤·디렉터 인수

구글이 모바일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메시징 앱 '이뮤'와 동영상 편집 앱 '디렉터'를 인수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뮤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다른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합해 메시징 앱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일정을 관리하고 위치를 공유하거나 레스토랑 및 영화관 검색 등 여러 활동을 이뮤에서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체 모바일 메시징 앱인 '행아웃'에 이뮤의 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뮤 서비스는 오는 25일자로 종료된다. 행아웃은 와츠앱이나 라인, 위챗 등 다른 메시징 앱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디렉터는 구글의 유튜브 광고팀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 앱은 간단한 동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줘 중소기업들이 마케팅 영상 제작에 활용해왔다. 디렉터 인수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이 더욱 쉽게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글은 강조했다.

WHO 에볼라 긴급위원회 개최

세계보건기구(WHO)는 6일(현지시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의 선포 여부를 결정할 긴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7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면역 및 백신 전문가들이 전화 콘퍼런스 형태로 참가한다. 긴급위원회는 국경을 넘어 전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PHEIC를 선언하고 여행 자제를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에게 제시하게 된다.

WHO는 또 아프리카 서부의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08건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4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1711명, 사망자는 932명으로 늘게 됐다.

美, 위안부 할머니 내달 2차면담

미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시 초청해 2차 면담을 할 계획이다. 2차 면담에는 백악관의 시민사회담당과 함께 외교안보라인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렛 애니스코프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 겸 공공업무국장은 다음 달 위안부 할머니들과 후속 면담을 할 의지를 밝혔다. 애니스코프 국장은 지난달 30일 위안부 할머니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면담에 참석하면,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 차원을 넘어 외교정책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백악관의 면담 바로 다음날 국무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던 것을 고려하면 백악관의 내달 추가 면담이 국무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차 면담과 관련해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실무준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예, 교명 변경 '투 트랙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의원들 사모임 '오봉회' 결성·학점은행협의회 동원

돈 건네는 CCTV 영상·문자메시지 등 물증 확보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가 교명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도로 전략화한 '투 트랙 입법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SAC의 원래 명칭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 2003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업자 등을 교육하는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나 SAC는 2009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학점인정기관) 인가를 받고 학생 유치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름있는 연예인이나 업계 관계자들을 교수·강사로 초빙하고 아이돌 스타를 배출시켰다고 홍보했다.

교육부는 학점인정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했으나 이 진흥원의 문모(43·구속기소) 감사실장마저 SAC의 금품로비에 매수돼 사실상 SAC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어 김민성(55) SAC 이사장은 SAC는 학교 이름에 붙은 '직업'을 떼고 4년제 정규 대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

SAC 겸임교수이자 옛 민주통합당의 호남권 지역위원장 출신인 장모(55)씨 등 소개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60) 의원을 만났다. 장씨와 신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및 전현희 전 의원 등과 함께 사모임 '오봉회'를 결성, 북악산 우이령길 등 곳곳으로 등산을 다니며 친분도 쌓았다.

'오봉회' 회원들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인 지난해 10월께 제주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신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안 통과를 위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봉회 및 협의회가 동시에 동원된 셈이다.

김 이사장으로부터 관련 법안이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3명은 곧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 측 계좌에서 법안 통과를 앞둔 특정 시기에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고, 김 이사장이 이 돈을 세 의원 측에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해당 의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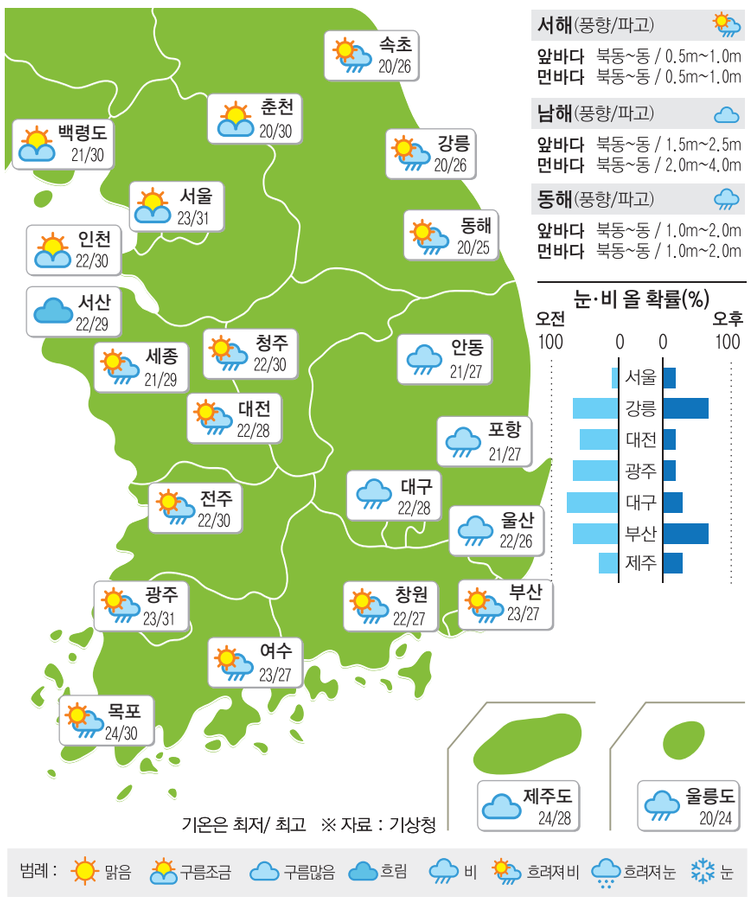
한편 검찰은 오봉회 회원인 전현희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이 결성된 계기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와의 연관성 등을 물을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내일의 날씨

8월 8일 ☀ 해뜸 05:42 해짐 19:34 🌙 달뜸 17:12 달짐 02:37

남부지방이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을 받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는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 전 해상에서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앞바다,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1.5~3.0m로 점차 높게 일겠다.



'세월호 참사' 부른 해운비리 해피아 등 43명 무더기 기소

檢, 전 조합 이사장 등 18명 구속… 과적·과승 부실검사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해피아'에 속하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 '경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운조합 부회장 A(62)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 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유혜은 기자 euna@



'명품 싸게 사자' '롯데백화점 해외명품대전' 행사가 6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1000억원의 물량을 30~70% 할인 판매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0억원 부과

건설사들의 공공입찰공사 담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업체 임원은 전화연락을 통해 사전에 가격을 정했으며 입찰 당일에도 미리 만나 합의한 대로(투찰률 95% 선 이하) 입찰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그 결과 474억원의 공사대금을 써 낸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이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흥국·동부 등 9개社 종신보험 퇴출

'허위·과장' 판매중단·리콜

흥국, 동부 등 9개 생보사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허위·과장판매 했다가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 가운데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9개 상품을 적발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 중단된 보험 상품은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생명),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생명), 더스마트(the smart)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_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생명), 평생보장보험U3(흥국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생명) 등 9개다.

우선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만이 부각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연금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도 어렵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9개 보험회사의 경영진과 면담한 후 자율적으로 판매 중단토록 하고,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강구귀 기자 kkk@

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영장 검토

삼표이앤씨서 1억여원 수뢰 혐의

검찰이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다음 날 오전 1시가 넘을 때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뒤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후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들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 측은 이날 조사에서 철도부품 국산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삼표이앤씨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euna@

이마트 '헌혈증↔포인트' 중단

적십자 "금전적 보상 안돼"
회사측 "위법인 줄 몰랐다"

이마트가 헌혈증을 기증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사를 열었다가 나흘 만에 돌연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해 약 200만장에 달하는 휴면 헌혈증을 모으기 위한 취지지만, 헌혈증을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주고받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란 사실을 마트 측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국 140개 이마트 점포는 이달 1일부터 헌혈증을 매장에 기부하는 고객에게 장당 신세계포인트 5000점을 적립해주는 헌혈 활성화 캠페인에 돌입했다.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이마트는 고객이 기증한 헌혈증 1만1000장을 모아 백혈병 및 소아암 지원단체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측이 행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금성 포인트를 헌혈증과 교환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고 자신이나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는 이번 주부터 헌혈증을 기부한 고객에게 제공하던 포인트 적립을 전격 중단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헌혈증을 기증한 상대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마트가 지난 5일부로 헌혈증을 가져온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마트 측은 "숨어 있는 헌혈증을 모으자는 좋은 의도에서 기획한 행사였는데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못 챙긴 점을 고객들에게 사과한다"면서 "다만 각 점포에 헌혈버스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헌혈을 독려하는 캠페인은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농협은행 사무보조원 '2년 기간제 근로'

여성직장 재탐색

농협은행 부천 소사남지점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한다.

직무내용은 일반 사무보조 업무이며, 창구업무는 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6개월 계약직이나 최장 2년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고졸 이상이면 경력이나 전공, 외국어능력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서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운전가능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근무지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이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된다. 복리후생으로 퇴직금이 제공되며 4대보험은 직원채용 후 가입된다. 문의 032-341-2693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사무보조원
직무내용	일반사무보조업무
접수마감일	2014년 8월 18일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6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고졸이상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곳간 빈 지자체 "기재부 출신 모십니다"

'부산' 김규옥·'인천' 배국환 경제부시장 내정
정부 예산확보 재정난 탈피 '코드 맞추기' 분석


왼쪽 사진부터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권오봉 전라남도 경제특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통' 고위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경제부처에 힘이 실리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확보'라는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들 지차체는 조직에 '경제'를 강조하는 변화의 바람도 불어 넣고 있다.

부산시가 1일 신임 경제부시장으로 선임한 김규옥 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 재직 당시 엘리트로 꼽혔던 인물이다. 부산 출신인 김 신임 부시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대외산업국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해왔다.

김 부시장의 발탁은 풍부한 예산 확보로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부산시가 앞장서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핵심부서의 고위급 인사가 광역단체 경제부시장으로 내려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국비 확보 노력 등에 힘을 보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최근 부채를 줄이고 재정난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존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꾸고 공개채용을 통해 배국환 전 기재부 2차관을 첫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

배 내정자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79년 행정고시(22회)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배 내정자는 주변에서 이른바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채용과정에서도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제적 판단'에 따른 인사로 풀이된다. 배 내정자는 8일 인천시 인사간담회를 거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1일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했다. 행시 24회인 우 신임 부지사도 재정경제부 총무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 등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을 지낸 권오봉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경제부지사로 영입한 바 있으며 지난 달부터 도 경제특보 자격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군부에 뺏긴 손자 찾은 아르헨 인권대모 카를로토

"36년 의지… 딸도 기뻐할 것"

70년대 군사정권시절 딸 체포
옥중 출산 후 외손주 강제입양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시절(1976~83년)에 납치·실종된 아기들을 찾아주는 인권단체 '5월 광장의 할머니들'의 대표 에스텔라 데 카를로토(83) 여사가 36년 만에 외손자를 찾았다. 미국언론매체 더와이어 캡처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정권시절(1976~83년)에 납치·실종된 아기들을 찾아주는 인권단체 '5월 광장의 할머니들' 대표 에스텔라 데 카를로토(83) 여사가 36년 만에 외손자를 찾았다.

좌파 무장단체에서 활동한 에스텔라의 딸 라우라 데 카를로토는 1977년 23세 때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체포돼 비밀수용소에 갇혀 1978년 6월 수용소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살해됐고 라우라의 아들은 강제 입양됐다. 당시 47세였던 에스텔라는 필사적으로 외손자를 찾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외손자 생부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샘플을 유전자은행에 기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캠프를 방문한 에스텔라가 리오넬 메시 등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언론매체를 통해 사진이 아르헨티나 전국에 소개됐고 오래전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던 외손자가 사진을 보고 유전자은행에 직접 찾아와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99.999%' 일치였다고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전했다.

군인 가정에서 '이그나시오 우르반'의 이름으로 성장한 외손자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350㎞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으면 '기도 데 카를로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

에스텔라는 "찾은 외손자가 다른 손자들과 같이 음악가라며 (딸)라우라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도와의 전화통화에서 기도는 기쁘고 괜찮다고 말했으나 우리 가족은 기도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강진원 한국셀석유 사장이(왼쪽) 6일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수용 부경대학교 부총장과 장학금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셀석유

한국셀석유 부산 3개 대학에 장학금 기탁

한국셀석유는 지방대학 발전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부산지역 3개 대학에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7일 한국셀석유에 따르면 강진원 한국셀석유 사장은 6일 부경대학교를 방문해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한국해양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도 각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제공된다.

한국셀석유는 2002년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년째 부산지역 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강 사장은 "학업에 충실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아가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사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조수미 "교황님 앞에서… 소원 이뤘어요"

15일 대전 미사서 특별공연


뉴시스

소프라노 조수미(52·사진)가 방한하는 교황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7일 소속사 유니버설뮤직은 조수미가 오는 15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78)이 집전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 초청돼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조수미는 이날 식전행사에서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 영화 '미션'의 OST로 알려진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 판타지아',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의 '라 판타지아'의 무대를 꾸민다. 이어 조수미는 미사에서 4월 앨범에 수록된 '파니스 안젤리쿠스(생명의 양식)'를 부른다.

조수미의 세례명은 소화 테레사이며, 조수미가 거주하고 있는 로마의 집은 교황청과 3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처럼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는 조수미는 지난 4월 '아베 마리아'가 수록된 음반을 발매하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가톨릭 신자이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 그 분 앞에서 노래하는 게 소원이다. 내가 얼마나 교황을 존경하는지 직접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수미는 "이번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일정을 미뤘다"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며 존경해왔다. 낮은 곳,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분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요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종교를 초월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교황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美 농구스타 베키 해먼, NBA 여성 코치 1호

샌안토니오 스퍼스 정식 선임


AP뉴시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올스타에 6차례나 이름을 올린 베키 해먼(37·사진)이 미국프로농구(NBA) 무대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코치로서 남자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

2013~2014시즌 NBA 챔피언인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6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해먼을 정식 코치로 선임했다. NBA 사상 여성이 코치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1~2002시즌 WNBA 감독 출신인 리사 보이어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코치를 맡았지만 캐벌리어스의 유급 코치가 아닌 파트타이머였다. 특히 원정경기에는 동행하지 않는 등 정식 코치로서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WNBA의 스타 가드였던 해먼은 지난달 16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감했다. 1999년 WNBA에 정식 데뷔해 뉴욕 리버티와 샌안토니오 스타스에서 맹활약한 해먼은 올스타에 6차례나 뽑힐 만큼 스타플레이어였다. 해먼은 WNBA 16시즌 동안 1905득점(7위), 1687도움(4위), 445경기 출장(6위)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등번호 25번은 영구 결번됐다.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였던 해먼은 지난 시즌 그렉 포포비치 샌안토니오 감독의 초청으로 스퍼스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NBA에 적응했다.

포포비치 감독은 "해먼은 농구 지능지수가 높고 뛰어난 직업의식을 지녔다. 게다가 대인관계도 완만해 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해먼은 "엄청난 도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많은데,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전지현·김상중·김병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전지현


김상중


김병만

배우 전지현(33), 김상중(49), 코미디언 김병만(39)이 제4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개인상을 수상한다. 한국방송협회는 6일 전지현, 김상중, 김병만이 포함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수상자 및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3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전지현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연기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지현은 극중 천송이 역을 맡아 김수현과 호흡을 맞췄고, 천방지축 연기로 호평 받았다. '별에서 온 그대'는 한류 드라마로 각광 받았다.

김상중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로 TV진행자상을 받는다. 김상중은 사회의 단면을 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날카로우면서도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김병만은 SBS '정글의 법칙'으로 코미디언상의 주인공이 됐다. 2011년 첫 방송된 '정글의 법칙' 전 세계 오지에서 생존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그려 인기를 끌었고, 김병만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새로운 예능 형태를 창조했다.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으로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3년부터 시작된 한국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 전체 매체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송시상제도다. 올해 시상식에는 30개 부문 29개 작품과 25개 부문 2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두선 기자 sun@

롯데百 사상 최대 '10억 경품' 주인공 탄생

6일 본점 추첨… 경남 창원 박모씨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인 10억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롯데백화점은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소공동 본점 정문 앞에서 총 13억5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108명을 추첨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 없이 백화점 고객 중 4명을 추첨 진행자로 선정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만장의 응모지 중 1등 당첨지를 써낸 행운의 주인공은 경남 창원점에서 응모한 박모 씨로 정해졌다. 롯데백화점 측은 1등 당첨자에게 10억원어치 상품권을, 2등 당첨자 2명 1억원, 3등 당첨자 5명 1000만원, 4등 당첨자 100명에게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10일까지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해 당첨사실을 알리고 11일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7일까지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날까지 경품을 받아가지 않으면 예비당첨자가 경품을 받게 된다. 이선애 기자 lsa@

'한국계' 존 리 美연방판사 매년 여름 고대 강단 선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계 미국인 존 리〈사진〉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초빙교수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리 판사는 앞으로 매년 여름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민사재판 실무' 수업을 맡는다.

리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3번째로 연방판사에 임명됐다. 연방판사는 미 법조계 최고의 영예직으로 꼽히며 임기는 종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뒤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이근 서울대 교수 '슘페터상'



이근〈사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독일에서 열린 국제 슘페터학회 총회에서 단독 영문저서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슘페터상을 받았다.

이 상은 최근 2년간 나온 경제학 분야 연구업적 중 우수한 저작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24편의 연구물이 경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또 슘페터학회의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인사

◆한국투자공사(KIC) ◇승진 △정보시스템팀장 이장복 ◇전보 △사모주식팀장 정수용 △부동산·인프라팀장 김종호 △헤지펀드팀장 신용선 △전략조정실장 정지환 △사업개발팀장 겸 홍보실장 이승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창조정책부장 겸 대외협력실장 권경훈 △오창운영본부장 겸 질량분석연구부장 김현식 △기획부장 김현기 △물성과학연구부장 조영훈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이용식 △기획본부장 김장근

◆동명대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조승구 △국고사업총괄본부장 겸 CK-1(지방대학특성화)사업단장 노태정 △공과대학장 이수룡 △기획처장 겸 CK-1사업단 기계플랜트설계사업단장 박준협 △ACE사업(잘 가르치는대학)단장 겸 교양교육원장 이화행 △비서실장 이준연 △CK-1사업단 ICT 항만물류융합사업단장 이응주 △" BIM건축사업단장 임남기 △" 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장 김정인 △" MICE사업단장 이정실 △" 글로컬유통사업단장 김진백 △" 창의인성사업단장 윤정진 △" 행정지원팀장 정광호 △IRB운영센터장 김영희 △ACE사업단 행정지원팀장 강용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장 박은희 △교무처 학사지원팀장 안재훈 △기획처 경영기획팀장 박남규 △사무처 재무팀장 원양연 △사무처 관재팀장 류화영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박태환

부음

▲오승철(보험개발원 총무홍보팀장)·승태(남천개발)·윤실(주부)씨 모친상, 이일준(서대문세무서)씨 장모상 = 6일 오전 8시,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30분, 064-732-5288

▲정규윤(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씨 별세, 정규종(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팀장)씨 형제상 = 6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010-2000

▲신경호(수림문화재단 상임이사)씨 부친상 = 6일 오전 4시 30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303호, 발인 8일 오전 8시, 062-951-1004

▲서지환(자영업)씨 모친상, 김성중(매일경제신문 사진부장)씨 장모상 = 6일, 김제 우석한방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63-543-4484

▲이성기(뉴시스 충북취재본부 부장)씨 장모상 = 7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장례식장 특실, 발인 9일 오전 9시, 044-866-4141

▲최창민(전 인천일보 이사)씨 장인상 = 6일 오전 1시, 부천순천향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8일 오전 8시, 032-327-4008, 010-5332-8599

▲박상래(소방방재청 홍보계장)씨 부친상 = 6일, 전북 익산시 실로암 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063-858-4444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은퇴 후 공동체

은퇴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인간은 다양한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행복을 실감한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은퇴설계에서 공동체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매우 쓸쓸한 은퇴생활을 맞이하고 있다.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공동체, 취미여가, 자기계발도 재무상태 못지않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좋은 공동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심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많다.

중장년들은 은퇴후 마음이 맞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멋진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을 만나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진심 어린 교류를 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이나 학연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에 익숙해 있다. 자신이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회사나 동창회에 속하면 자동으로 인간관계를 주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중장년들이 자발적으로 세련된 자세로 공동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의 은퇴계층은 매우 외로운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단 노후에 쓸쓸한 삶
자기계발·취미여가·봉사 통해
좋은 사람들과 교류 유지하며
행복한 공동체적 삶 이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들의 친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베이비 부머들은 평균 2.6명의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7.6%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전혀 없었으며, 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0%에 불과했다. 실태조사에서 잘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중장년들의 공동체는 무너져 있다. '고독사'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을 정도로 외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다.

은퇴후 공동체 생활을 활발하게 만들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은퇴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사람을 사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장, 학교, 친척과 같은 인간관계에 의존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해진다. 자기계발, 취미여가,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과 인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생활의 중심이 일터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겨진다. 특히 고령으로 활동반경이 줄어들면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지자체,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지역기반의 좋은 활동이 많이 개최된다. 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을 넓혀 나가야 한다.

세번째는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해야 한다. 건강이나 생활방식이 비슷한 집단도 좋지만, 젊은 계층과 교류하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

'노인끼리 모여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경우다. 젊은 계층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모습의 사회교류가 가능하다. 중년 이후에 최악의 인간관계를 맞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퇴연구소장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왜 지금 이순신 신드롬일까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만 계셨어도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극장을 나선 한 중년 남성 관객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영화 '명량'발 이순신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순신 신드롬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참담하고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이순신 신드롬의 강렬함은 어두운 대한민국 현실의 반작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여름철 날씨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순신 신드롬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강렬한 분노가 동시에 깔려 있다.

이순신 신드롬의 진원지 영화 '명량' 흥행 기세는 무섭기까지 하다. 개봉일 최다 관객(7월 30일·68만2772명), 역대 최단 시간(2일) 100만 돌파, 일일 최다 관객(8월 2일·122만9008명), 개봉 7일 만에 600만 돌파 등 한국 영화 흥행사를 새로 쓰고 있다. 날만 새면 '명량' 기록은 한국 영화의 신기록이 된다. 이런 흥행 속도라면 1362만명으로 관객 동원 1위 '아바타'를 무너뜨리는 것도 시간 문제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출판계도 이순신 바람이 거세다. 2001년 출간된 이순신의 생애를 다룬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가 다시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는 이변이 연출되고 있다. 김탁환의 소설 '불멸의 이순신'도 또다시 관심을 끈다. 최근 출간된 소설 '명량'도 판매세가 만만치 않다. 그뿐만 아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의 리더십', '진심진력: 삶의 전장에서 이순신을 만나다', '난중일기', '이순신의 제국' 등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점가에는 150여종의 이순신 관련 서적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의 이순신 관련 인터넷 강의 등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연과 강의도 폭발적인 관심을 끈다.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도 앞다퉈 이순신 신드롬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 하필 지금 이순신 신드롬일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대중성과 위대함이라는 인물 자체의 매력과 흡인력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또한 최민식의 열연과 진화된 사극의 면모 등 '명량'의 영화적 완성도와 흥행 열풍도 이순신 신드롬의 하나의 이유다. 무엇보다 이순신 신드롬은 세월호 참사와 대참사를 둘러싸고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에서부터 관료,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와 우리시대의 진정한 리더십 부재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순신의 영화 속 대사는 스크린 너머의 국민 가슴에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에 불을 지폈다. 정반대의 현실의 암울한 지도자들의 행태와 대조되면서 말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16일 눈앞에서 수백명의 학생이, 시민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세월호의 대참사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구호 실무자의 무능과 기업가들의 탐욕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실종자 가족 중에 전문 선동꾼이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등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아닌 책임 회피의 극치를 보여주는 지도층의 망발과 망언이 계속됐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도 세월호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보다는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향한 지도자들의 행태가 낳은 대한민국의 대참사를 보면서 국민은 분노했다. 절망했다. "정부와 정치인이 무능하고 비도덕적이어서 천재지변도 아닌 인재로 생긴 일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것이다." 가수 김장훈이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단식에 동참하며 던진 절규다. 이 절규는 대다수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의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환멸은 공정무사, 솔선수범 그리고 자기희생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민심을 수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분출됐다. 귓속에 맴도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만 계셨어도…"라는 관객의 말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첨언하려 한다. 이순신 장군의 백성을 향한 의리와 충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사리사욕과 무능만은 보이지 말아 달라고.

knbae@

온라인 와글와글 기업 '신입' 뽑을 때 '경력' 고려, 월급은 어디에 맞추지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경력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네티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결국 일은 경력직처럼 하게 하고 돈은 신입월급 주는 사람을 뽑는거네", "신입한테 경력 능력을 요구할 거면 경력직을 뽑아라", "신입한테 전문성 찾을 거면 아예 직업 전문 대학교를 만들어서 키우지?", "시대 잘 타고나 토익 700점대, 컴퓨터 자격증,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편히 입사할 수 있었던 때에 입사한 인간들이 요즘 대학생들 저울질하는 꼴, 답이 없다. 이제 와 전문성 갖춘 신입을 원한다니",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 아냐? 황당하네", "거기다 여자는 얼굴까지 본다", "난 회사 입장 이해간다. 졸업 미루면서 헛짓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 맛보기라도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거 아닌가?"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지자체장이 구내 '카톡(카카오톡)방' 개설을 통한 직원 간 소통을 강조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원들은 '카톡족쇄'를 우려,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카톡방 열리는 순간 웰컴 투 지옥.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퇴근해서도 왜 메시지 확인 안 하냐고 난리. 주말도 업무 관련 지시 올려대고 쉴 시간이 없다. 상사에 아랫사람들은 비위 맞추고. 다 탈퇴했다", "가식적이고 제한적인 말들만 오고 갈텐데 그게 소통이야?", "상급자랑 카톡방 개설하면 단톡 하나로 분위기 살벌해지더라", "그럼 고위 공무원들도 대통령과 카톡방 만들어~", "소통은 지시나 강요가 아닌 자기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뤄진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럼 다른 소통의 방법을 제시해라. 방법 없이 거부만 한다면 그건 일하기 싫은 것", "지위 및 보고 과정 단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소통이다"라고 반박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갤럭시노트4 아이폰6, 9월초 잇달아 공개…스펙은?
2. 13번째 절기 입추·말복, 11호 태풍 할롱까지 겹쳐
3. 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 자살…취업 등 신변 비관해
4. 여야,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에 엇갈린 목소리
5. 마이핀 서비스, 7일부터 본격 시행 및 발급

오늘의 BAE 배국남.com www.baekn.com

뮤지컬 '시카고' 록시 하트 역 다시 맡은 아이비



배국남닷컴은 5일 아이비를 만났다. 아이비는 주인공 록시 하트 역으로 2년만에 뮤지컬 '시카고'로 돌아왔다. 아이비는 원 캐스팅으로 역을 소화하는 점에 대해 "혼자 연습하다 보니 연습량과 고민이 2배다. 선배 최정원이 특별 조언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이비는 앞서 2012년 뮤지컬 '시카고'에서 같은 역을 소화해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여우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어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아이비는 최정원과 뮤지컬 '키스미 케이트', '고스트', '시카고' 등의 작품에 함께 출연한 인연을 갖고 있다. 아이비는 이날 최정원으로부터 "요즘 무대 위 에너지가 좋다. 보기만 해도 예쁘다. 연기력과 순발력이 좋다. 가요계에 뺏기고 싶지 않은 후배다"라며 극찬을 받았다. 이에 아이비는 "칭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함께하는 것만으로 영광이고, 꿈꾸는 것 같다. 전설이시지 않냐"고 화답했다.

또한 아이비는 극 중 벨마 켈리 역을 맡아 상대 역 호흡을 맞추는 최정원에 대해 "저는 최정원이 선보이는 넘버 '올댓재즈'의 에너지로 힘을 받아서 공연의 2시간 반 동안 끝까지 힘을 내서 간다. 제 우상이시고 정말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비는 "최정원 선배님과 계속 같은 작품을 하는 게 뮤지컬 배우로선 영광이고, 더 많이 배워서 나중에 벨마 켈리역도 제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비는 사랑스럽고 섹시한 캐릭터인 록시 하트 연기에 각오를 다지며 "외국 연출진 중 이번에는 안무감독이 바뀌었다. 더욱 에너지 발산하고 자유로워진 록시 하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데스크 칼럼

삼성·애플, 법정을 나와 10년 뒤 고민할 때



한 지 운
산업부장

2011년 3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장. 한 초로(初老)의 주주가 일어나 단상에 선 최지성 부회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이 애플에 왜 뒤집니까. 잡스가 연일 폄하하고 있는데 왜 참고 있습니까. 맞서 일침을 가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 부회장이 "애플은 지난해 삼성의 제1의 거래선으로 공개 대응하는 것은 주주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지만, 주주들의 술렁임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주주는 "삼성전자가 1-2년 후면 애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최고경영자(CEO)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당시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갤럭시탭'을 겨냥해 "7인치 태블릿은 "도착 즉시 사망할 것(DOA: Dead On Arrival)"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아이패드2' 출시 행사에서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진영은 '카피캣(Copycat·모방자)'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등, 연일 날 선 공격을 가했다.

반면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경쟁자이자 주요 부품 고객사였다. 속은 끓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주총회 한 달여 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하자 삼성도 대응에 나섰고, 이는 결국 글로벌 특허 소송으로 번지며 3년 넘게 양사 간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변화는 많았다. 주주의 바람대로 삼성은 2년여 뒤인 2013년 3분기 애플을 앞지르며 스마트폰 판매 1위 업체로 등극했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전기를 통해 말했던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 한때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에 휴대폰 부문을 넘겼다.

스마트폰 시대를 관통했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달 6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외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길고 길었던 양측의 특허전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양사의 전격 합의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만 들었을 뿐 특허 분쟁 확대의 실익이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양사가 집요한 소송전에 몰두하는 사이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최대 경쟁자로 급부상, '삼성-애플' 양강 구도가 위태로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앞서 애플은 구글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20건도 지난 5월 취하하는 등, 경쟁자들을 겨냥했던 칼날을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 9억3000만 달러 배상금 지불을 명령한 1차 소송에 대한 삼성 측 항소와 애플이 추가로 제소한 2차 소송이 남아 있지만, 현 추세라면 추가적인 확전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컨수머 시장은 10년 주기로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게 통설이다. 현재가 스마트폰이라면, 다음 10년에는 새로운 아이템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벌써부터 '플렉서블', '웨어러블', '헬스케어'가 차세대 산업의 흐름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 삼성이나 애플 모두 다음 10년을 좌우할 먹거리가 무엇일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때다.

삼성은 가전에서 반도체로 한 차례 도약한 후, 휴대폰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큰 성장을 이뤄냈다. 애플 역시 '왜 컴퓨팅 회사가 음향기기를 만드냐'는 반대를 딛고 출시한 MP3플레이어 '아이팟'이 부진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트렌드를 선도하며 애플을 브랜드 가치 1위 회사로 부상시켰다. 한 번이라도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잘못 읽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대 산업의 흐름이다.

이제 법정을 나올 때가 됐다. 삼성과 애플 모두 스마트폰 이후 시대를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승적 판단과 결단을 기대해 본다. goguma@

객석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장 순 복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시장운영팀 과장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현상을 인식하는 틀인 경제 패러다임은 수세기를 거쳐 오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15세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중상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겪는 과정에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대, 누진세에 기초한 복지 제공 등 경제성장과 소득형평을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주의가 1960년대 말까지 확산됐다.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케인스 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부의 비효율, 복지국가 팽창에 따른 막대한 조세부담 문제도 부각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치로 내세우고 민영화·분권화·탈규제화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에 대해 회의를 품게 했다. 자유경쟁을 위한 무절제한 규제완화로 레버리지 투기거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심화된 자산버블이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서 금융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나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경제정책과 그 성과에 관해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으나 경험적 연구의 결론은 경제정책이 상황 특정적(context-specific)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경제 패러다임과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기자의 눈

보신주의와 금융권 낙하산 인사



김 경 아
금융시장부/kakim@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라고 당국에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도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도 엄밀히 말하면 당국의 보신주의라고 생각 됩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한 임원은 당국의 보신주의 개선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창조경제와 실물경제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금융권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며 '금융 보신주의'가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보신주의를 타파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보신주의 운운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솔선수범하라고 말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창업,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만 보더라도 만약 은행이 담보 없이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묻는다.

급할 땐 무조건 기업을 지원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게 묻는 감독당국의 무책임한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은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정권 실세와 막역한 낙하산 인사야말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보신주의라고 꼬집는다.

최근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공석인 계열사 IBK자산운용에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는 외부 인사는 정권 실세와 같은 대구 고등학교 동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임기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대우증권 김기범 사장 후임에도 정권 실세와 인연이 깊은 금융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보신주의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이는 곧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강영관의 부동산 업&다운

'투자 핫플레이스' 제주 부동산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는 에메랄드 빛 가득한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곳. 이 고즈넉한 어촌마을은 5년 사이에 해안도로를 따라 농가 주택을 개조해 형형색색으로 꾸민 '카페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월정리는 동네 분위기만 변화한 게 아니다. 제주도민을 비롯해 외지인들이 농가 주택과 땅을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경매로 나온 월정리 소재 109㎡짜리 토지는 지난 4월 첫 경매에서 54명이 응찰해 감정가 1035만원의 416%인 4311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1월에는 단독주택이 경매에서 15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법원경매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월정리 인근 포구에서 만난 주민의 말처럼 땅이 척박해 농사도 잘 안되던 '월정리'가 이제는 '멀쩡한' 동네가 된 것이다.

제주도 부동산시장은 월정리 사례와 같이 요즘 '투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제주도는 오래 전부터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 받았지만 부동산 투자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인구가 많지 않아 부동산 가격 변동도 적었다.

제주도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처음 투자이민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인들의 투자가 몰려들고 '돈'이 돌기 시작했다.

곳곳에 OO랜드, OO박물관 등 테마형 관광시설이 조성됐고 해안마을마다 커피숍과 음식점, 펜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제주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저가항공과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올레길,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은 내국인 관광객과 함께 40대 가장들의 발길을 자극했다. 물론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육지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었다.

제주도 인구가 지난해 60만명을 넘었다. 귀농·귀촌 열풍으로 작년 한해에만 1만2000여명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작년 말 60만4670명에서 지난달 기준 61만2705명으로 6개월 새 8035명이 증가했다. 연말에는 6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지수요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연세 200만~300만원짜리 농가주택과 3.3㎡당 10만원 아래였던 토지는 최근 수년새 2-3배 경충 뛰었다. 실제 제주 중산간 마을은 3.3㎡당 2010년 10만~15만원에서 2013년 20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해안가의 경우 40만원까지 올랐다.

아파트값도 단기 급등 피로감에 최근 강보합 정도지만 지난 2010~12년까지 평균 30% 가까이 올랐다. 미분양 아파트도 크게 감소해 지난 5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40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925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단시간 내에 부동산 값이 뛰면서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품 논란도 생기고 있다. 또한 올레코스 주변에 새롭게 생겨나는 커피숍은 생태와 힐링문화의 상징이 됐지만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오히려 자연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그러나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물음표를 다는 이는 별로 없다.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시장부 기자 kwa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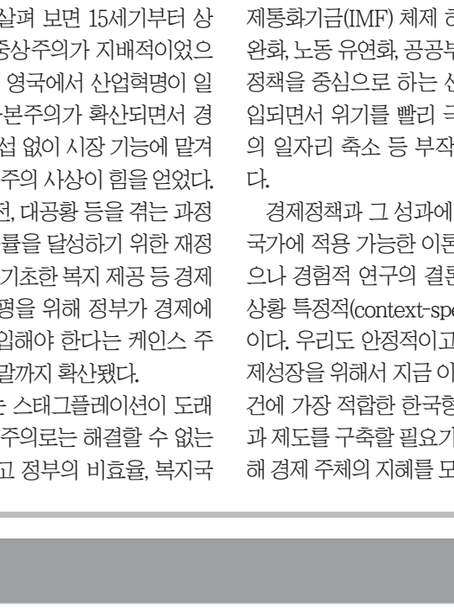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 시장부 (02)799-2658 |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 미래산업부 (02)799-2663 |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 국제경제부 (02)799-2650 |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자폐증 딸의 말문을 열어준 한 아버지의 감동 실화!



아이는 느려도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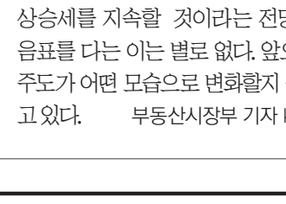
화제의 책

도조 겐이치 지음 | 김소연 옮김 | 280쪽 | 13,000원

딸을 언어 천재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선고.
"딸아이는 자폐증입니다. 말은 평생 못하겠네요"라는 의사의 말!
그러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낸 아버지의 마법 같은 3가지 규칙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논픽션으로서의 감동뿐만 아니라 육아로 고민하는 부모,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_일본 아마존 독자평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투를 기록한 논픽션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인생 지침서." _일본 아마존 독자평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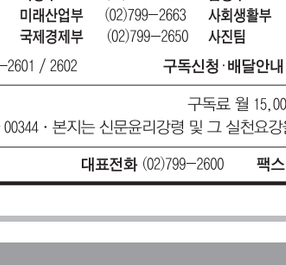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의사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자연의 힘이다!

로버트 S. 멘델존 지음 | 김세미 옮김
382쪽 | 15,000원

내 아이를 망치지 않는 놀라운 육아법

양육의 기술



양육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

앨리슨 셰이퍼 지음 | 김이숙 옮김
340쪽 | 14,000원

info@moonye.com T 393. 5681 F 393. 5685 www.moonye.com blog.naver.com/imoonye (주)문예출판사 since 1966


레드벨벳


위너

SM '레드벨벳'·YG '위너'… "가요계 우리가 접수"

대형 신인 아이돌이 가요계 돌풍을 예고했다. 가요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비슷한 시기에 신인 아이돌 그룹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SM의 4인조 걸그룹 레드벨벳(Red Velvet)과 YG의 5인조 보이그룹 위너(WINNER)다. 두 그룹은 어떤 매력으로 가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까.

슬기, 아이린, 웬디, 조이 등 4명의 멤버로 구성된 SM의 걸그룹 레드벨벳은 지난 1일 KBS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데뷔곡 '행복(Happiness)'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열대우림을 연상케하는 '행복' 뮤비 티저영상은 공개 4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3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낳았다.

슬기(20), 아이린(23), 웬디(20)는 SM의 프리데뷔팀 SM루키즈(SM ROOKIES)를 통해 공개돼 데뷔 전부터 기대주로 떠올랐다. 특히 웬디는 2012년 'SM 글로벌 오디션 in 캐나다'를 통해 선발했다. 플루트, 기타, 색소폰 등 출중한 악기 연주 실력 보유자다. 반면 조이(18)는 기존 SM 스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멤버로 노래, 춤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신예로 떠올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인조 걸그룹 '레드벨벳'

지난 1일 뮤직뱅크서 '행복' 데뷔

뮤비 티저 4일만에 130만뷰 화제

5인조 보이그룹 '위너'

작년 서바이벌 방송 'WIN' 우승

데뷔음원은 오는 12일 자정 공개

강승윤, 송민호, 김진우, 이승훈, 남태현 등 5명으로 구성된 위너는 YG가 8년 만에 선보이는 남자그룹이다. 6일 론칭쇼를 통해 전격 데뷔했다. 위너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WIN(Who Is Next)'에서 우승하면서 데뷔 기회를 갖게 됐고, 약 1년 만에 데뷔곡을 발표하게 됐다. 강승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린 데뷔고 오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여 그 결과가 기대를 받은 것에 비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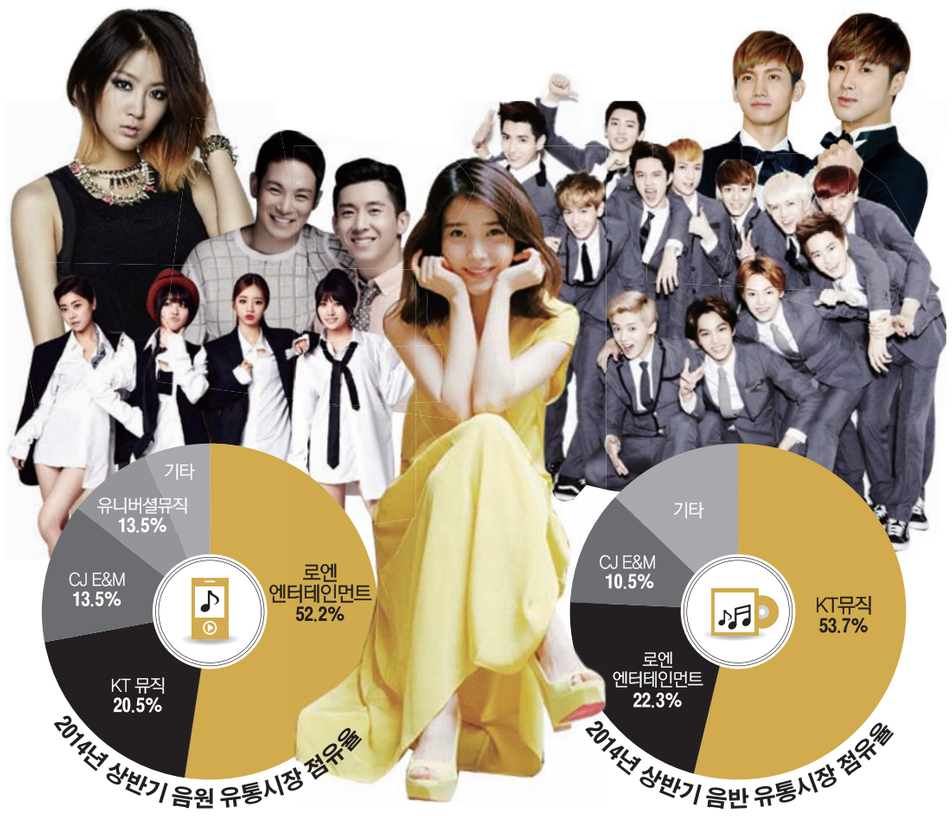
그간 위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위너TV', 선배 그룹 빅뱅의 일본투어 오프닝 게스트 등을 통해 무대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키워왔다. 또한 콘셉트 촬영 결과물을 공개하는 '테스트 위크', 티저영상를 공개한 '위너 위크' 등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도장을 찍었다. 데뷔 음원은 오는 12일 자정 공개된다.

김민정 기자 mj_kim@



상반기 음원·음반 유통시장 승자는

로엔엔터·KT뮤직



로엔, 음원 시장 점유율 52.2%
멜론 운영·한해 앨범 30% 유통

KT뮤직은 음반부문 53.7% 1위
엑소·동방신기 등 SM 파워 주효

2NE1·태양 등 소속된 YG엔터
작년 점유율 6%서 12% 급성장

한해의 반이 훌쩍 지나 8월에 접어들었다. 많은 곡이 뜨고 지고를 반복한 2014 상반기 가요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유통사와 제작사는 과연 어느 곳일까.

가장 크게 웃은 곳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다. 지난달 25일 가온차트가 발표한 종합가온지수 합계를 살펴보면 로엔의 100위권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은 52.2%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겼다. 그 외 KT뮤직은 20.5%, CJ E&M은 13.5%, 유니버셜 뮤직은 8.6%로 집계됐다.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은 음원업계 부동의 1위인 멜론을 운영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자사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타 소속사 가수의 음원 투자·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해 수익성을 강화, 한 해 발표되는 전체 음반의 30%에 달하는 500장의 아티스트 및 드라마 OST 앨범을 투자·유통 중이다.

로엔의 높은 수익성은 올해 상반기 로엔이 투자·유통한 음원 히트와 궤를 같이한다. 화제 속에서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가 히트를 쳤고, 소유X정기고의 '썸', 걸스데이 '썸싱', 에이핑크의 '미스터츄(Mr. Chu)',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너를 너를 너를'이 높은 음원 수익을 기록했다. 로엔이 이들의 디지털 음원을 유통하면서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유의 '꽃갈피' 앨범과 하이포와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의 기여도 컸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00위권 기준 CJ E&M 25.1%, KT뮤직 15.4%의 유통시장 점유율과 비교해 보면, CJ E&M에서 줄어든 시장점유율을 KT뮤직과 로엔이 일정 부분 흡수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100위권 음반 유통시장 점유율은 KT뮤직이 53.7%로 압도적이다. 로엔이 22.3%, CJ E&M이 10.5%로 뒤를 이었다. KT뮤직의 과반이 넘는 음반시장 점유율에는 SM 아티스트들의 음반 유통이 주효했다. 상반기 아티스트별 음반 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엑소가 27%, 동방신기와 소녀시대가 9%와 5%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41%로, SM 소속 가수의 높은 음반 파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작사의 음원 매출 점유 현황은 유통사와는 달리 제작사별로 점유율에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매출 점유율은 YG엔터테인먼트가 12%, SBS콘텐츠허브가 8%, 로엔트리 6%, 스타쉽엑스 6% 등으로 집계됐다.

YG는 지난해(6%)에 비해 100%에 가까운 점유율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악동뮤지션과 2NE1, 태양의 음원 실적이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민희 YG 홍보팀장은 "악동뮤지션이 올해 초 데뷔와 함께 음원과 음반에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태양의 새 앨범이 지난 6월 초에 발매됐음에도 아직까지 음원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눈, 코, 입'의 음원 수명이 긴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SBS 콘텐츠 허브의 높은 점유율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OST가 흥행한 데에서 기인했다.

눈에 띄는 것은 로엔트리와 스타쉽엑스의 활약이다. 로엔트리와 스타쉽엑스가 로엔의 서브레이블임을 감안하면 로엔의 제작시장 점유율은 매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YG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요 업계에서의 로엔의 지배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랭킹 엔터테인먼트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을 그린 최민식, 류승룡 주연의 영화 '명량'의 기세가 매섭다. 한 주간 474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TV는 김희선, 이서진 주연의 KBS 2TV 드라마 '참 좋은 시절'이 시청률 25.0%(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로 왕좌를 유지했다.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23.9%로 2위를 차지했다. 음악은 씨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가 1위를 기록했으며,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과 걸스데이의 '달링'이 각각 2, 3위를 차지해 전주와 동일하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관객	누적관객
1	명량	474만6739명	475만9217명
2	군도: 민란의 시대	136만9142명	447만2319명
3	드래곤 길들이기2	121만1529명	211만4604명
4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58만2113명	58만2721명
5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19만8897명	398만1745명
6	신의 한 수	6만3102명	356만3713명
7	터키	6만591명	6만2207명
8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3만2535명	4만6458명
9	해적: 바다로 간 산적	2만7329명	3만2841명
10	프란시스 하	1만4813명	5만6408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참좋은시절	25	KBS2
2	왔다장보리	23.9	MBC
2	고양이는있다	19.6	KBS1
4	KBS 9시뉴스	17.8	KBS1
5	개그콘서트	15.9	KBS2
6	전국노래자랑	14	KBS1
7	빠꾸기동지	13.7	KBS2
8	해피선데이	13.5	KBS2
9	일밤	12.7	MBC
10	무한도전	12.6	MBC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터치 마이 바디	씨스타	0
2	한여름밤의 꿀	산이, 레이나	0
3	달링	걸스데이	0
4	헐	블락비	8
5	눈, 코, 입	태양	-1
6	빨개요	현아	진입
7	명수네 떡볶이	박명수	-2
8	단발머리	AOA	-1
9	이제 그만 싸우자	허각, 정은지	-3
10	잭팟	블락비	-2

누구는 꿈꾸고 누구는 꿈버려

Cover Story 취준생 vs 직장인

청년실업률 상승 '취업 갈수록 좁은문'
구직 단념자 40만명 암울한 고용시장

직장인, 야근·격무에 일·사생활 꼬여
꿈꾸던 회사 맞나?… 96% 퇴사 충동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 단념자가 무려 4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3만3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1.6%p나 뛰어올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이 곧 행운'이란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취준생 10명 가운데 7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다는 각오이다. 휴가철이 한창이지만 구직자 60% 이상이 '피서 갈 계획이 없다'고 답할 정도다.

이런 취준생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은 직장인이 된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541명을 대상으로 "귀하가 직장인이 된 후 가장 꿈꾸는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일과 사생활 모두 제대로 해내는 완벽한 모습'이 29.2%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정받는 프로의 모습'(23.5%), '주거독립, 차량소유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14.8%), '여행 등의 여가를 즐기는 여유 있는 모습'(14.8%), '칼퇴근 후 외국어 등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6.5%) 등이 다음이었다. 퇴근 후에는 '운동 등 각종 취미생활'(33.5%), '학원 등 자기계발'(14.2%), '집에서 휴식'(11.8%), '데이트 등 연애'(10.4%),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9.6%) 등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직장인이 된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상과 너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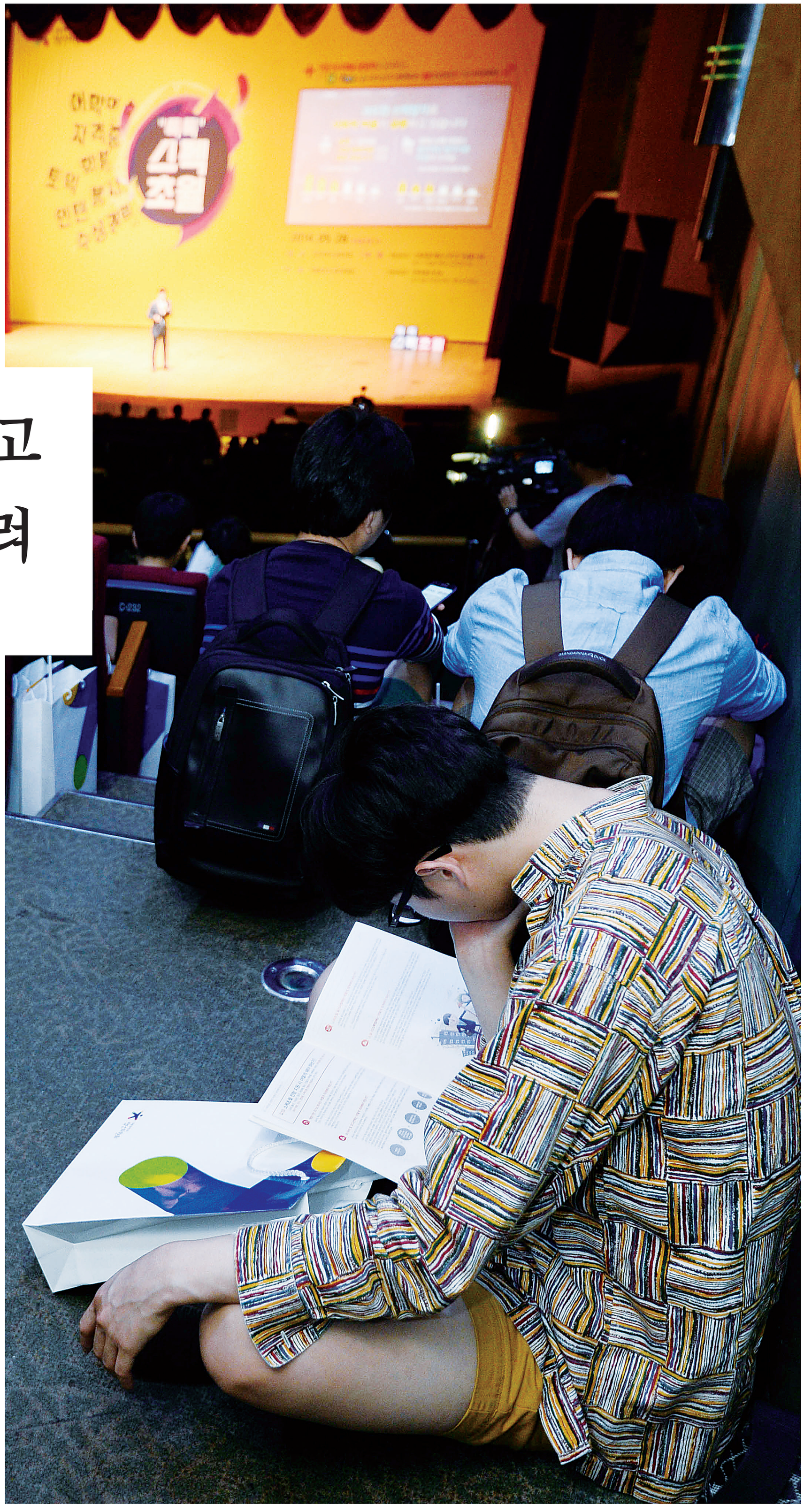
어렵사리 취업한 직장인들은 '내가 꿈꾸던 회사 맞나' 싶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잡무와 상사,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 문제였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자기계발할 시간은커녕 제대로 쉴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직장인 96.7%는 퇴사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며, 그 주기는 평균 3개월에 한 번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충동을 느끼는 주기는 '주 1회'가 2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매일'(20%), '2~3개월에 한 번'(18.4%), '월 1회'(18.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현 직장에 대해 애사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평소 꿈꾸던 직장생활에 대한 로망으로 의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점점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인들은 현재 자신이 꿈꾸던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구직자들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내서 구직활동을 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커버스토리 18·19면



채용설명회는 어딜 가나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취준생들로 만원이다. 그러나 취업했다고 해서 고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퇴직의 유혹을 받지만,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견디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개최한 '스펙초월 채용 설명회'. 뉴시스

긴 구직활동에 없던 병 생겨… "비정규직이라도 제발"

괴로운 취업준비생

취업을 준비하는 일명 취준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한 수순처럼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사의 문턱은 너무 높기만 하다는 것이 취준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임금근로자 377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 이르고 있다.

첫 취업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처럼 소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준생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고용 형태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취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7%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로는 '고용 형태보다는 취업이 더 급해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31.5%,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20.8%,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준생, 구직기간 느끼는 압박 1위는?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취업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신입 구직자

청년취업 평균 소요기간 1년 걸려
고용형태 뒷전 "일단 경력 쌓고 보자"
스펙 압박·사회분위기에 자신감 '뚝'
'뭐하고 지내?' 라는 말에 가장 상처

683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압박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무려 91.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2.5%는 '구직활동을 얼마나 길게 할지 아득하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남들에 비해 항상 부족한 것 같음'(59.4%), '어디든 지원해야 할 것 같음'(59.3%), '지원 전부터 탈락할 것 같아 불안함'(47.9%)이라고 답했다. 또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는 '스펙 등 보유역량 부족'(32%)을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16%), '자신감 부족'(15.8%), '잦은 탈락 경험'(14.2%), '주위로부터의 기대감'(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압박감의 영향으로는 '자꾸 공포를 가지게 된다'(55.9%, 복수응답), '무의미한 묻지마 지원을 한다'(35%), '자기소개서 등 작성에 집중하지 못한다'(33.5%), '어차피 안될 것 같아 준비를 소홀히 한다'(27.2%), '스펙에 대한 욕심이 커진다'(24.8%)고 응답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은 구직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이는 주위의 관심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혹여 누군가 "요즘 뭐하고 지내"라고 묻기라도 하면 "제발 묻지 마라. 나 아프다"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구직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은 '요즘 뭐하고 지내?'(25%)라는 말에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취업은 했어?'라며 취업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말(16.4%),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라며 무시하는 말(15.8%), 'OO는 OO기업에 합격했던데'라는 등의 남과 비교하는 말(13.5%), '올해 안에는 해야지?'라면서 취업을 재촉하는 말(10.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구직자들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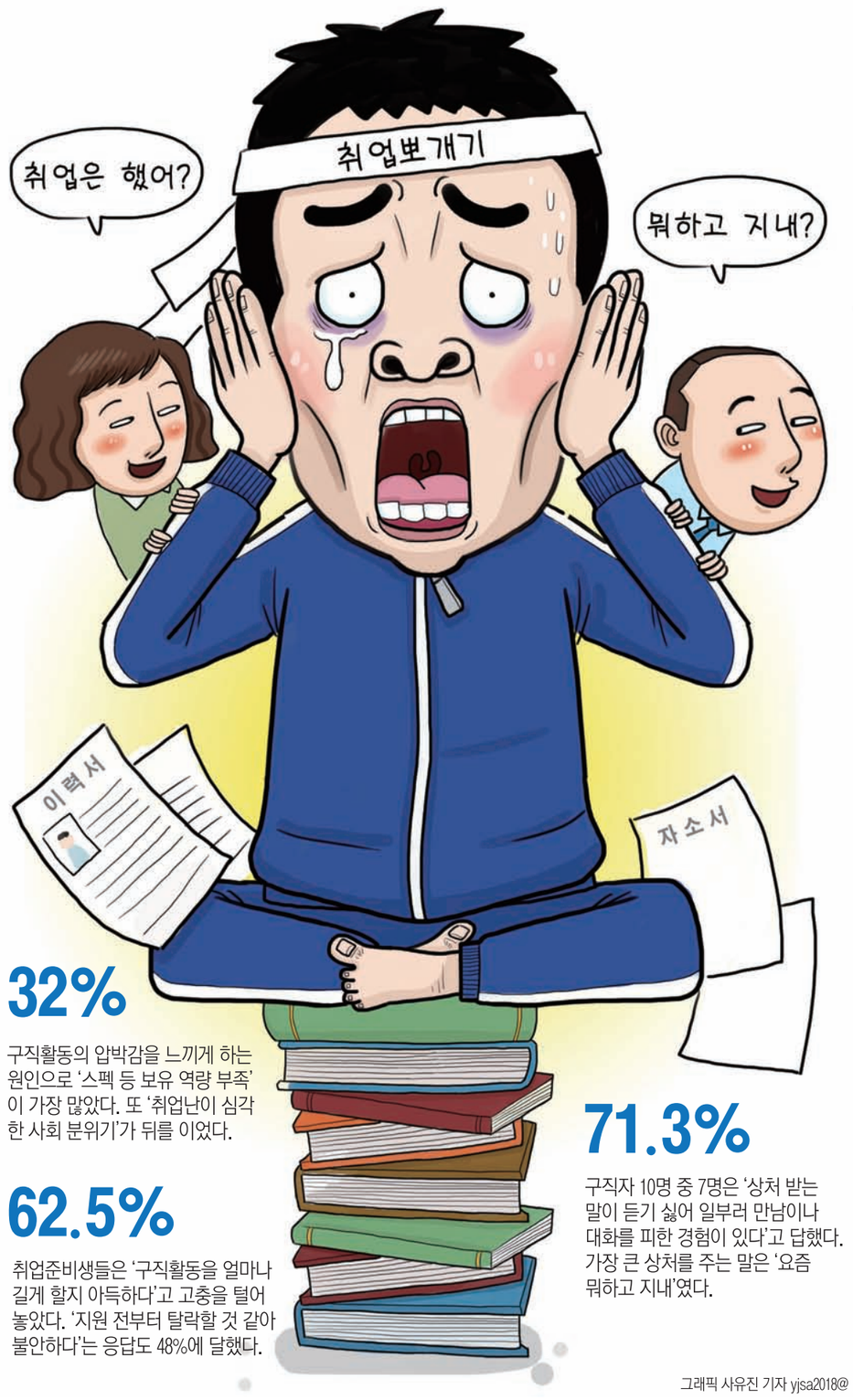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구직자들은 '걱정 마, 분명 기회가 찾아올 거야'와 같은 희망적인 말(20.9%)을 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너뿐만 아니라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려움에 공감해주는 말(20.3%), '너는 충분히 좋은 데 들어갈 능력이 있어'라는 칭찬의 말(16%),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라고 용기를 주는 말(15.7%) 등이 뒤를 이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취준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는 건 생각도 안 한다. 회사가 어디든, 비정규직이든 회사만 들어가고 싶다." – 취준생 K씨

"면접만 50번 가까이 본 것 같다. 이제는 면접에 통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정곡을 찌르는 질문부터 지역과 학교 등을 비하하는 발언도 더러 있었던 것 같다. 입사가 갈수록 막막하다." – 취준생 C씨



32%
구직활동의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스펙 등 보유 역량 부족'이 가장 많았다. 또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가 뒤를 이었다.

62.5%
취업준비생들은 '구직활동을 얼마나 길게 할지 아득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원 전부터 탈락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응답도 48%에 달했다.

71.3%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상처 받는 말이 듣기 싫어 일부러 만남이나 대화를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은 '요즘 뭐하고 지내'였다.

그래픽 사유진 기자 yjsa2018@

하반기를 바라보는 구직자 시선

"작년보다 덜 뽑을 거 같다" 42%

취업난 원인으로 '경기침체' 꼽아
"희망연봉 등 눈높이 낮췄다" 38%

올 상반기 채용시장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 붙었다. 이는 애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와 달리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심화된 것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501명을 대상으로 '체감하는 올 상반기 취업시장 구직난'을 설문한 결과 무려 96%가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서류합격 및 면접경쟁이 치열해져서'(49.9%,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차지했고, 이어 '채용공고가 많지 않아서'(41.4%), '기업별 채용규모가 작아서'(35.1%), '지원자격 조건이 높아져서'(32.8%), '지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서'(30.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추고, '묻지마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의 38%(복수응답)는 희망연봉 등 눈높이를 낮춘 반면 직무나 기업 등 목표에 관계없이 지원한 구직자도 3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일까. 구직자들은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채용시장은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하반기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구직자 87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신입직 취업 경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8%가 '하반기 신입직을 작년 하반기보다 덜 뽑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37.3%는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작년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는 7.5%에 그쳤다. 13.4%는 '예상하지 못 하겠다'고 했다. 구직자들은 하반기 취업시장에서 '스펙초월 열린채용과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다'(50.3%)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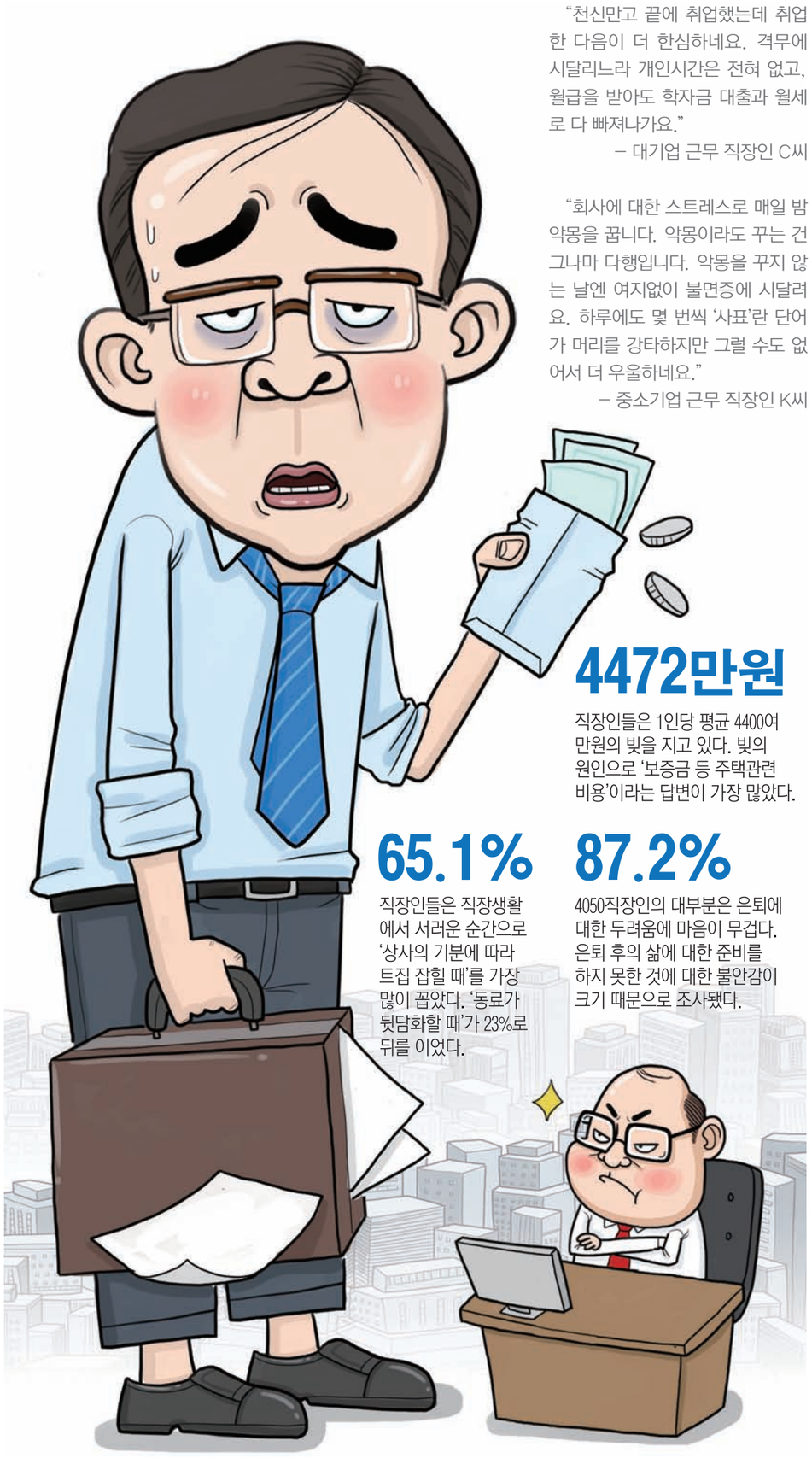
이밖에도 '신입 인턴제도(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로 신입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48.1%로 많았고, 이어 '소셜채용이 확산할 것 같다'(25.3%)거나 '삼성그룹 공채 전형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16.8%)는 응답들도 많았다.

한편 취업난이 심각한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30.5%)를 1순위로 택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부족'(21.2%), '정부의 효과적인 실업정책 부진'(2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상사 눈치·쥐꼬리 월급… "입사하자마자 이직 생각뿐"



"천신만고 끝에 취업했는데 취업한 다음이 더 한심하네요. 격무에 시달리느라 개인시간은 전혀 없고,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과 월세로 다 빠져나가요."
– 대기업 근무 직장인 C씨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악몽이라도 꾸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악몽을 꾸지 않는 날엔 여지없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란 단어가 머리를 강타하지만 그럴 수도 없어서 더 우울하네요."
– 중소기업 근무 직장인 K씨

4472만원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44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빚의 원인으로 '보증금 등 주택관련 비용'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65.1%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서러운 순간으로 '상사의 기분에 따라 트집 잡힐 때'를 가장 많이 꼽았다. '동료가 뒷담화할 때'가 23%로 뒤를 이었다.

87.2%

4050직장인의 대부분은 은퇴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무겁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사유진 기자 yjsa2018@

서러운 직장인들

동료 따돌림에 음주강요까지
직장내 인간관계 가장 어려워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
은퇴 이후 삶 준비 못해 더 막막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통과했지만 직장인이 된 순간 새로운 고생길이 열린다. 그토록 바라던 직장생활이었지만 현실은 끊임없는 업무와 야근, 상사로부터의 시달림,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점철돼 있다. 여기에 불만족스런 월급과 형편없는 복지까지 더해지면 퇴사 생각이 간절한 것도 당연지사. 직장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상사의 기분 따라 트집 잡힐 때' 서러워=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내 인간관계는 쉽지 않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72명을 대상으로 '상황별 나를 서럽게 하는 순간 베스트 3'를 조사한 결과 '상사의 기분에 따라 트집 잡힐 때'(65.1%, 복수응답)가 독보적인 1위였다. 그리고 '동료가 뒷담화할 때'(23%), '친분을 이용해서 일시킬 때'(15.9%), '따돌림을 당할 때'(14.9%), '부하직원에게 하극상 당할 때'(11.6%), '흡연, 음주 등을 강요받을 때'(11.6%) 등이 꼽혔다.

업무적으로는 '잡무를 도맡아 할 때'(37.8%, 복수응답)가 가장 서러운 순간으로 꼽혔다. '대충 지시받은 일인데 나중에 야단맞을 때'(35.5%), '일이 없어도 눈치 보여 야근할 때'(32.5%),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32.3%), '평일 휴식, 자기계발 등은 상상도 못할 때'(31.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절반, 1인당 빚 평균 4472만원=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도 직장인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빚 상태'를 조사한 결과, 48.4%가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진 빚은 1인당 평균 44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35.6%는 빚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빚을 진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42.9%(복수응답)가 '보증금 등의 주택관련비'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자금'(32.6%), '생활비'(29.4%), '쇼핑 및 유흥비'(5.9%), '자녀 양육비'(5.4%), '결혼자금'(4.6%), '개인 용돈'(4.6%) 등이 꼽혔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 10명 중 6명(62.9%)은 스스로 일을 해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인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050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은퇴가 걱정"=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직장인의 마음은 무겁다. 4050직장인의 87.2%는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은퇴 후 삶을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65.1%,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져서'(63.6%), '뒷바라지 할 자녀가 있어서'(28.7%), '은퇴 후 삶이 너무 길어서'(22.4%) 등이 그 다음이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향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우려를 낳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기업 뒤통수 치는 '블랙지원자'

경력·학력·어학점수 등 허위 기재

채용담당자 25% 입사취소 경험
인적성 검사 강화·수습기간 평가

최근 채용 과정이 스펙보다는 지원자들의 실무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 채용이 확산하면서 자신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해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포트폴리오 SNS 웰던투(Welldone.to)와 잡코리아가 기업 채용담당자 592명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25.3%가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허위 정보 게재로 인해 입사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외국계 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중견기업 38.9% △공기업 및 공공기관 37.5% △국내 대기업 30.6% △중소기업 19.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건설·자동차·기계·철강업 38.3% △금융업 33.3% 등도 높았다.

특히 입사 취소를 결정했던 지원자의 허위 정보로는 경력사항이 응답률 39.3%(복수선택)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력 28.0% △어학점수 26.0% △출신학교 21.3% △전공 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질병 및 건강상태 △자격증 △신용 및 채무 문제가 각각 14.0%를 차지했다.

이런 입사 지원자들의 허위 정보 게재 방지를 위해 기업에서 별도로 도입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물은 결과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기업이 2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횟수를 늘린다 18.1%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 11.3% △평판조회를 하고 있다 10.0% △출신학교 조회를 하고 있다 5.4% 등이 순이었다.

반면 아무런 프로세스가 없다는 기업도 27.9%로 10개사 중 3개사 정도에 달했다.

'블랙 지원자'로 골탕을 먹은 기업들은 정식 채용 전 수습 등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326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7%가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역량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서'(53.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직무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46.5%), '조직 적응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46%), '조기이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33.8%),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0.8%), '성격 등의 결함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23.7%)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유혜은 기자 euna@

동성제약
www.dongsung-pharm.co.kr



시간은 흘러도 좋은 염모제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웰빙 염모제의 기준-세븐에이트

품질에 대한 한결 같은 믿음으로 선택한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취향에 따라 스타일에 맞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물론
생활 속 활력과 자신감까지 되찾아 드립니다

냄새없이 빠르고 간편한 제3세대 웰빙 염모제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냄새없는 무향료 : 무향료 제조기술로 좁은 실내에서 편안하게 염색하실 수 있습니다.
윤기있는 건강한 머릿결 : 유채꽃 추출 영양성분이 광택과 건강함을 더해줍니다.
자외선 차단제 함유 : 선블럭의 OMC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줍니다.

4호(자연스런 밤색) 5호(진한밤색) 6호(자연스런 갈색) 7호(자연스런 흑갈색)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온라인 구매 : www.dseshop.co.kr

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 최고 지향하는 '세꼭지 별'



1947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1300만대 이상 판매된 히트 모델이다. 2009년 8월 국내에 선보인 9세대 E-클래스는 출시 후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바로 등극했다. 업그레이드된 더 뉴 E-클래스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 사각지대 보조 시스템 등 운전자를 위한 안전 기술과 함께 전방 추돌에서 보행자 피해를 줄이는 액티브 보닛이 새롭게 장착됐다. 뉴 E-클래스는 총 9가지 라인업이 출시되고 있으며 가격은 6030만원부터 1억3650만원까지다.



1982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850만여대가 판매된 중형 승용차다. 2007년 출시된 4세대는 220만대가 팔린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7년 만에 풀체인지 되어 지난달 국내 선보인 5세대 더 뉴 C-클래스는 트렁크 적재공간이 480L 로 늘어나는 등 차체는 커지고, 알루미늄과 스틸 하이브리드 섀시를 사용한 경량 구조로 무게는 최대 100kg까지 줄었다. 프리-세이프, 사각지대 어시스트, 충돌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평행 주차는 물론 주차공간에서 차를 자동으로 빼주는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 등 다양한 신기술이 장착됐다. 가격은 4860만원부터 5800만원까지다.



㉕ 메르세데스-벤츠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역사는 자동차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특히,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The best or nothing)'는 다임러 창업정신은 메르세데스-벤츠를 최고급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안전의 대명사 그리고 세계적인 명차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배·비행기 엔진서도 경쟁 獨 명품 자동차 라이벌
'벤츠+다임러' 1926년 합병 '프리미엄車' 대명사로
세계 첫 충돌테스트·ABS·에어백 등 '안전' 투자



◇벤츠와 다임러가 이끈 독일 명품 자동차 = 1883년 10월 칼 벤츠(Carl Benz)는 독일 만하임에서 세계 최초의 자동차 공장 '벤츠&시에(Benz&Cie)'를 설립했다. 1886년 1월 29일 페이턴트 모터카 특허 등록(휘발유 엔진)을 하고 1893년 앞바퀴를 여러 각도로 돌릴 수 있는 '빅토리아'를 개발해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벤츠&시에는 1900년까지 매년 6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고틀립 다임러(Gottlieb Daimler)는 1886년 '말없는 마차'라는 이름의 모터 장착 틀을 개발했고, 1890년 DMG(Daimler-Motoren-Gesellschaft)를 설립했다. 1900년 DMG는 344명의 직원들이 96대의 자동차를 생산했고, 속도와 안전성을 모두 갖춘 경량차 '메르세데스' 브랜드를 론칭했다.

칼 벤츠와 고틀립 다임러의 자동차 제작에 대한 경쟁으로 독일의 차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모양새를 갖춰 나갔다. 20세기 들어 후손들이 경영하던 다임러는 벤츠와 자동차 시장 및 경주에서 맞부딪치면서 라이벌이 됐다.

1902년 다임러가 만든 '메르세데스'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차는 당시 다임러의 오스트리아 판매 대리인이었던 에밀 옐리네크의 딸 메르세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스페인어로 우아함을 뜻하는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다임러는 모든 차에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1902년부터 상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 회사의 경쟁은 독일 자동차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끌어올리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비행기 등의 엔진 제작에서도 선의의 경쟁에 나서게 된다.

◇벤츠&시에와 DMG의 만남 '메르세데스-벤츠'= 벤츠와 다임러는 1926년 합병하고 '다임러-벤츠 AG'를 설립했다. 경영은 벤츠가 맡았고, 이후 모든 상품에는 메르세데스-벤츠라는 이름이 붙었다. 상표는 1916년부터 다임러가 써온 'Three-pointed Star(세 꼭지 별)'로 결정됐다.

합병 후 다임러-벤츠 AG는 1928년 고성능차 '메르세데스 SSK'를 만들었고, 1929년 고급형 '뉘르부르크'를 출시했다. 뉘르부르크는 13일 동안 2만km를 계속 달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했다. 1935년에는 세계 최초의 디젤 승용차 '260D'를 개발, 1940년까지 총 2000대를 판매했다.

1930년대 벤츠는 세계 각국의 군주나 원수가 즐겨 탄 '그로서'와 아름답고 호화로운 유선형 스포츠카 'MB500K' 등을 내놓았다. 이후 1954년에는 불후의 명작으로 기록되고 있는 '300SL'을 출시했다. 경주용 차를 기본으로 제작된 300SL은 걸윙 도어를 가진 멋진 스타일에 6기통 2996cc 215마력 엔진을 얹었고, 최고속도 250km를 자랑했다. 300SL은 1963년까지 3258대가 생산됐다. 300SL과 뒤이어 나온 '190SL'은 현재의 SL 시리즈 기원이 됐다.

◇자동차의 전통과 혁신, 미래의 상징 = 자동차의 안전에 어느 브랜드보다도 많은 투자를 해왔던 다임러-벤츠 AG는 1930년대 강화 측면 보호대와 안전 도어 잠금장치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충돌사고 때 엔진이 밑으로 밀려나 승객의 부상을 막는 안전 차체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1953년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크럼플 존을 개발했고, 안전벨트 역시 1959년 벤츠가 처음 적용했다.

특히 1959년에는 세계 최초의 충돌 테스트를 실시해 화제가 됐다. 대표적인 안전장비인 ABS와 에어백 역시 벤츠가 최초로 실용화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28년이란 세월 동안 자동차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서 그 명성을 이어왔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브랜드의 혁신적인 도전, 최고를 위한 열정의 역사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임러가 '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열망을 심벌화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엠블럼인 '세 꼭지 별'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표 중 하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안전, 품질, 편안함과 매혹적인 스타일을 상징하며 전통과 혁신, 그리고 자동차의 미래로 평가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코스피 상승랠리 타고 다시 주목받는 증권株

7개사 3분기 예상순익 2589억
2분기 '1646억' 훌쩍 뛰어넘어
지난분기 구조조정 성공 영향
업황회복 아직 시기상조 지적도

주요 증권사 2·3분기 순이익 전망 비교

(단위: 억원·%)

	2분기	3분기	증감률
현대증권	45.00	131.00	191.11
삼성증권	268.45	779.90	190.52
미래에셋증권	366.38	428.23	16.88
키움증권	150.58	160.88	6.84
우리투자증권	-3.93	316.45	흑전
대우증권	344.32	328.86	-4.49
한국금융지주	475.22	443.35	-6.71
합계 및 평균	1646.02	2588.67	57.27

출처: 에프앤가이드

코스피가 3년 박스권 탈피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동안 소외됐던 증권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시 활성화 대책 등의 정책 수혜감으로 하반기 증권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도 6조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권주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증권사 7곳의 3분기 예상 순이익 합계는 2589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예상 순이익 합계인 164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증권사의 실적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분기 퇴직금 비용 발생분에 대한 기저효과로 개선폭은 크게 나타났다.

현대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전기대비 191.1% 늘어난 131억원, 삼성증권이 190.5% 증가한 780억원으로 추정됐다. 우리투자증권은 316억원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각각 16.9%, 6.8% 늘어난 428억원과 16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우증권은 329억원, 한국금융지주는 443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반기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침체기에 빠졌던 증권사들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익은 회복됐지만 이런 흐름을 지속하려면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내년에도 판관비는 줄어들 것"이라며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업황도 바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직 시기상조란 분석도 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한계가 있다"며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체질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 정책 기대는 유효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에 대해선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덧붙였다.

하장청 기자 jcha@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가정용 기기 제조업체인 쿠쿠전자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왼쪽부터), 정현교 쿠쿠전자 이사,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이호철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쿠전자, 상장 첫날부터 '후끈'

시초가 18만원… 상한가 직행
공모가 2배 20만7000원 마감

쿠쿠전자가 상장 첫 날부터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마저 뛰어넘은 쿠쿠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쿠쿠전자는 상장 첫날인 6일 공모가(10만4000원)보다 무려 80% 가까이 오른 18만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했다. 이후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상한가로 직행, 공모가 2배인 20만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상승세에 쿠쿠전자는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며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도 뛰어넘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쿠쿠전자 목표주가로 19만원을 제시했다.

쿠쿠전자의 거침없는 질주에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쿠쿠전자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쿠쿠전자의 공모가가 경쟁사인 리홈쿠첸 등에 비해 저평가됐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

박원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쿠쿠전자 공모주가 10만4000원을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은 14.1배 수준"이라며 "국내 밥솥 사업 경쟁사인 리홈쿠첸이나 렌탈 사업 경쟁사인 코웨이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쿠쿠전자의 주가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지산 연구원은 "당초 쿠쿠전자의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쿠쿠전자의 공모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 돼있다는 판단에서였다"며 "쿠쿠전자의 주가 강세는 적정 가격선을 맞출 때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선영 기자 moon@

매각 앞둔 현대증권 "희망퇴직 신청 접수"

8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돌입
부장·과장급에 9~10개월 위로금

매각을 앞두고 있는 현대증권이 8년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 현대증권이 대규모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전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현대증권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휴직자, 기간제 계약직, 정년제 직원 등 전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이며, 경영상 근무평점(실적, 인사고과), 근속년수, 근태, 징계 등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사측이 우선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사측이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희망퇴직 신청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8년만에 이뤄지는 희망퇴직이다 보니 가장 관심을 이끄는 부분은 위로금 수준이다. 지난 2006년 당시 현대증권이 제시한 위로금 규모는 부장급, 과장급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 수준으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위로금 수준은 턱 없이 낮다. 실제 근속년수 등을 감안해 최대 12개월치 급여를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평균 9~10개월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증권은 업황 불황에 따른 적자로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지난 28일 긴급 전체 임원회의을 열고 임원 일괄사표 제출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김경아 기자 kakim@

배당주 열풍… 증권사도 자체지수상품 개발

KDB대우 '배당성장 지수'
고배당·배당성장 모형 결합
업계 첫 배당지수 직접 산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배당주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에도 자체 배당지수를 내고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이달부터 '대우 배당성장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가 배당지수를 직접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기욱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앞으로도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해 지수를 직접 산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 배당성장지수는 시가총액 300위까지의 코스피 종목을 대상으로 고배당 모형과 배당성장 모형을 결합한 평가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고배당주 모형에선 배당수익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을, 배당성장주 모형에선 지금은 배당성향이 높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많고 지배구조상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배당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골랐다.

대우증권은 이들 고배당과 배당성장 모형을 결합해 상위 종목을 뽑아보니 1~10위가 각각 한국쉘석유, 한라비스테온공조, 신라교역, LG, 일신방직,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기아차, KCC, 세아베스틸, 넥센 순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11~20위에는 녹십자, 세아제강, 고려제강, 모토닉, 한국단자, 서울가스, 신세계푸드, 대덕GDS, 퍼시스, 한미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이기욱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대우 배당성장지수는 KODI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연평균 주가수익률을 나타냈고 배당수익률 역시 높아 안정적인 배당투자와 배당 성장성을 고려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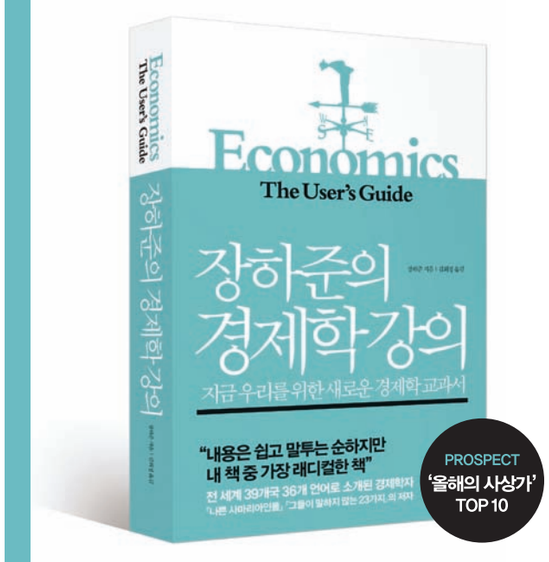
거래소, 상반기 불법 선물대여계좌 69개 적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올 상반기를 대상으로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을 실시, 총 69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2개 계좌에는 계좌폐쇄조치가, 7개 계좌에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시감위는 그 동안 회원사와 지속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해왔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점검을 통해 총 591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하고, 이중 537개는 계좌폐쇄조치를 54개는 수탁거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적발 계좌수는 지난 2012년 1분기 197개에서 올 상반기 69개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이같은 적발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호가 및 매매양태 등의 분석을 통해 새운 적출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강인효 기자 kangi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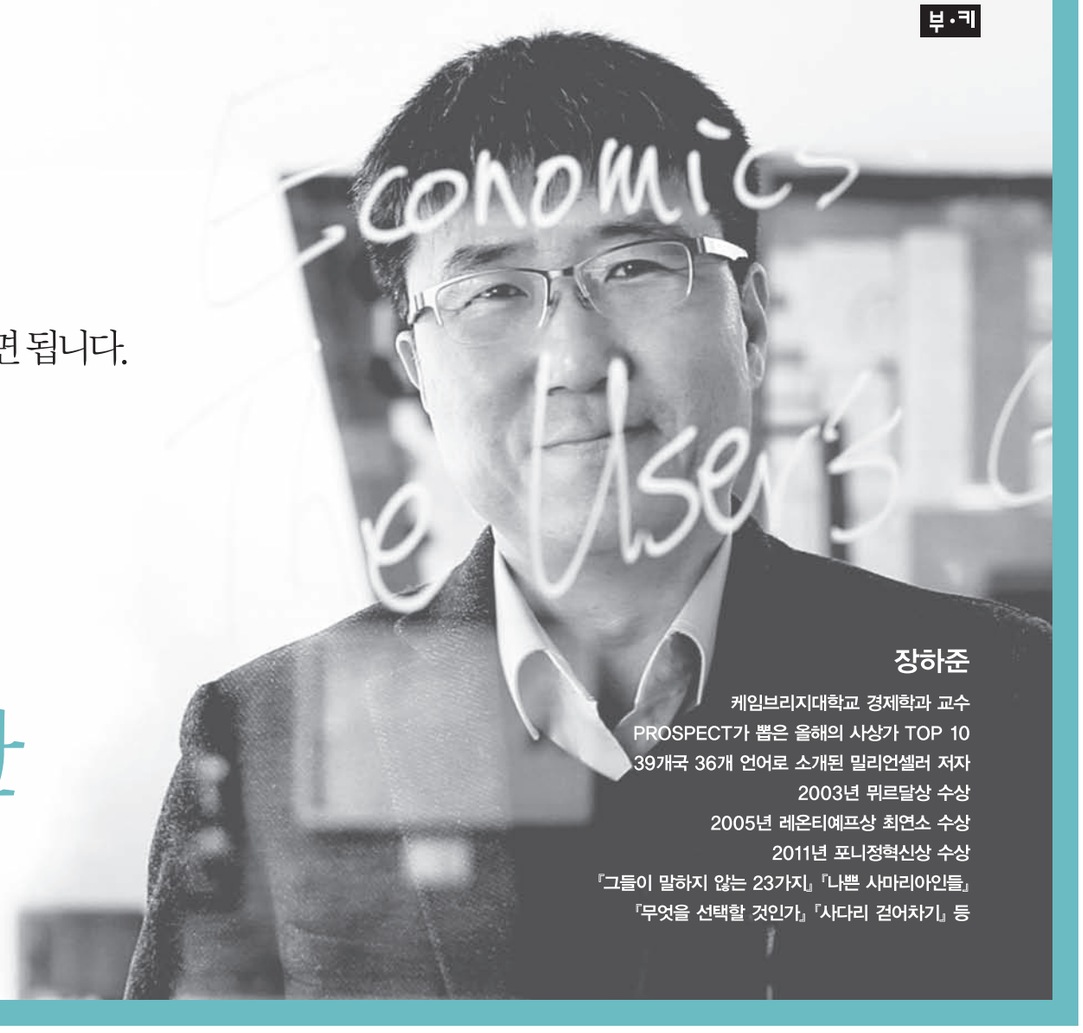


모를 땐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약간의 어려움,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16,800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ROSPECT가 뽑은 올해의 사상가 TOP 10
39개국 36개 언어로 소개된 밀리언셀러 저자
2003년 뮈르달상 수상
2005년 레온티예프상 최연소 수상
2011년 포니정혁신상 수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쁜 사마리아인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사다리 걷어차기』 등

나를 위한 경제학을 시작할 시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10대그룹 후계자, 은행이자 밑 돈 지분수익률

재벌과 주식 신동빈 회장·김동관 실장 올해 마이너스 수익
프롤로그 ① 정의선 부회장 4조대 진입… 6명 중 홀로 강세

국내 10대그룹 후계자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수익율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그룹 중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6명의 후계자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9조5545억원으로 지난해말 9조4650억원과 비교해 수익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2년이후 후계자들이 보유한 지분 수익률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말 기준 6명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연간 평균 수익률은 13%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말에 4%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그룹 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밟고 있는 후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광모 LG 부장, 신동빈 롯데쇼핑 회장, 조현태 대한한공 부사장, 김동관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이다.

그룹별로 보면 신동빈 회장과 김동관 실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부장이 갖고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 수익률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14개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6월말 현재 2조1723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4486억원과 비교해 12%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관 실장은 현재 한화와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실장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올 6월말 기준으로 2039억원으로 지난해말 2484억원과 비교해 18%가 감소해 6명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그룹내 4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가치도 올해 6월말 현재 2조5477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5897억원과 비교해 2%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지분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해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그룹 후계자 지분 가치 현황

그룹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말	→ 2014년 6월말
이재용(삼성)	2조1976억원	2조5626억원	2조5897억원	**2조5477억원**
정의선(현대차)	3조766억원	3조4226억원	3조5986억원	**4조620억원**
구광모(LG)	5454억원	5781억원	5543억원	**5418억원**
신동빈(롯데)	2조657억원	2조2701억원	2조4486억원	**2조1723억원**
조현태(한진)	327억원	346억원	254억원	**268억원**
김동관(한화)	2186억원	2799억원	2484억원	**2039억원**
총계	8조1366억원	9조1479억원	9조4650억원	**9조5545억원**

※ 상장사=시가, 비상장사=최근 사업연도 순자산가치



반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평가금액 상승률은 불경기에도 꺽이지 않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재 그룹내 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6월말 현재 평가액은 4조620억원으로 지난해말 3조5986억원과 비교해 13%가 상승했다. 연도별 정 부회장 보유 지분 평가액 상승률을 보면 2012년 17%, 2013년 6% 등이다.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 평가금액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계열사는 현대글로비스로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상장사 중에서는 현대엠코와 이노션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정 부회장의 보유지분 평가금액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6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평가금액은 상장자와 비상장사의 지분을 각각 기준시점 시가와 최근 사업연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CNH리스 결국 '백기'… 대구백화점 분쟁 종결

대구백화점 공개매수 응해 7% 지분 처분… 지분 9.10%로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분쟁이 1년여만에 사실상 일단락 됐다.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2대주주 CNH리스가 최근 대구백화점의 공개매수에 응하며 7%에 가까운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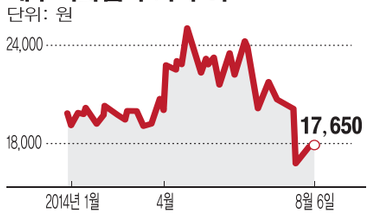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CNH리스측은 대구백화점에 대한 지분율이 기존 15.98%(172만9438주)에서 9.10%(98만4743주)로 6.88%포인트(74만4695주) 줄었다. CNH리스측은 지난달 대구백화점이 실시한 공개매수에 응하며 지분율이 대폭 줄었다.

CNH리스는 보유지분 6.25%(67만6000주) 가운데 2.61%에 해당하는 28만2361주를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 처분했고, 특수관계자인 CNH하스피탤러티, 프리미어모터스도 각각 공개매수에 응하며 보유지분의 1.37%(14만7884주) 등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CNH리스의 대구백화점에 대한 지분율은 3.74%(39만3639주)로 감소했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율도 각각 CNH하스피탤러티 1.90%, 프리미어모터스 1.46%, 김시중 1.02%, 주식회사 KMX 0.54%, 민홍기 0.54% 등으로 줄며 지분율이 9.10%로 낮아졌다.

대구백화점은 2대주주인 CNH리스가 공개매수 참여로 7%에 가까운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하게 됐다. 지난달 8일 대구백화점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전일 종가 대비 5.14% 높은 주당 2만2500원에 공개매수를 결정했다. 같은달 31일 대구백화점은 공개매수 결과 자사주 130만주(12.1%)를 취득해 보유중인 자사주가 180만주(16.63%)에서 310만주(28.65%)로 늘었다고 밝혔다.

대구백화점 주가 추이
단위: 원



김미정 기자 mjk@

만리장성 넘은 '테슬라'… '우리산업' 수혜 기대

중국 상표권 분쟁 마무리되며 독점납품 히터 수요 늘어날 듯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어난 상표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면서 코스닥 상장사 우리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산업은 PTC히터를 테슬라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분쟁 당사자인 잔바오성과 문제를 완전하고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잔바오성은 자신이 등록했던 테슬라 웹사이트 이름도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중국 정부가 이번 분쟁을 해결하는 기초를 다졌다"며 "우리는 중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테슬라는 올해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3만5000여대의 '모델S'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자동차 생산량을 주당 1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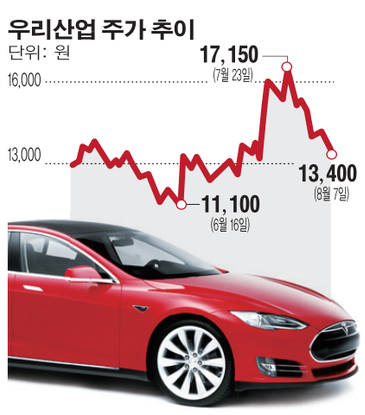
이는 우리산업에 호재라는 분석이다. 우리산업은 2012년부터 PTC히터를 테슬라에 공급 중이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및 수소차, 피아트 전기차에도 납품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GM 스파크 전기차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유성모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PTC히터 매출액 증가는 테슬라 판매실적과 연동된다"며 "테슬라와 i3를 제외하면 전기차시장에서 의미있는 판매량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2020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을 50만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연평균성장률이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 연구원은 이어 "우리산업의 올해 예상실적기준 PER(주가수익배율)은 11.4배다. 글로벌 공조부품업체 평균 PER은 13.1배"라며 "테슬라 PTC히터 독점 납품 등 친환경차용 부품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관련 시장 성장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송영록 기자 syr@

관계사 지분 전량처분… 원익 '메디컬·통상' 신규 투자 올인

코스닥 상장사 원익이 관계회사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 회사는 이번에 마련한 자금을 메디컬·통상부문 신규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관계사인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 유한회사 보유 주식 30만1000주 전량을 주당 1만6716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금액은 50억3152만원으로 이는 최근 자기자본 대비 12.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원익은 지난 2011년 6월19일 경영참여 목적으로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에 최초 84억4100만원을 출자했다. 원익은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 지분 14.71%를 보유, 지난 3월말 기준 장부가액은 37억2400만원으로 이를 통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1만2372원이다. 원익은 이번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장부가액 대비 주당 35%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익은 이번에 마련한 자금을 메디컬·통상부문 신규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원익 관계자는 "메디컬·통상부문을 비롯 에스테틱 분야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으로 쓰일 것"며 "올 하반기 안에 자금이 모두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 중 일부는 올해 안에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강인효 기자 kangih@

공시돋보기

손해보며 부랴부랴 신주인수권 행사
스틸앤리소시즈의 '남모를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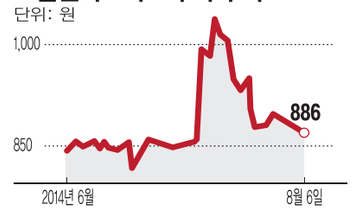
스틸앤리소시즈의 25억원 규모 신주인수권이 지난 6일 행사됐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918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21일로 발행주식 총수의 4.14%에 달하는 물량이다. 발행 당시 행사가액은 1602원이었지만 잇단 주가하락으로 3회에 걸친 가격 조정을 거쳤다.

주목되는 부분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다. 공시 시점인 6일 쓰리원의 종가는 886원으로 행사가액이 918원인 점을 감안하면 행사하자마자 6일 종가기준 주당 3.48%의 손해를 떠안는 셈이다.

이번 신주인수권은 지난해 5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됐는데 권리행사 종료일은 2016년 4월21일로 행사기간은 아직 1년이 넘게 남아있다. 발행대상자는 이트레이드증권이다.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의 분리 매각은 없었다.

상식적으로 행사 가능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시가보다 높은 행사가로 신수인수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권리행사 시 신주에 대한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하므로, 행사가가 시가를 넘어설 때 행사하는 것은 그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스틸앤리소시즈 주가 추이
단위: 원



신주인수권 보유자와 회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이면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이 회사가 일부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을 원하는 회사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현재 자본총계는 455억원으로 납입자본 595억원보다 적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도 스틸앤시소시즈의 6원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당시는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액에 행사됐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알서포트 "국내외 기업과 IoT 논의 중"

외국 가전업체·국내 대기업과 사물인터넷 솔루션 개발

원격지원 소프트웨어 업체 알서포트가 국내외 대기업과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서포트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가전업체와 가전과 스마트폰 등을 연결해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알서포트는 특정 기기 화면을 다른 기기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기기간 미러링 기술을 활용한 벡엔드 서비스(BaaS)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은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기반이 돼야 해 미러링 기술과 연관성이 높다.

알서포트는 이미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로 꼽히는 원격제어 솔루션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프로'와 '갤럭시 탭 프로'에 원격제어 솔루션인 '리모트 PC(Remote PC)'를 납품했다. 리모트 PC는 모바일 기기로 집이나 사무실 PC에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중국 스마트폰제조사 원플러스와는 6월 리모트콜 모바일팩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해 원격지원 고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할 시 원격 접속해 해결책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도 알서포트 제품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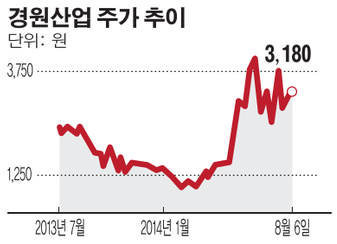
알서포트는 이러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납품으로 올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가량 성장한 240~2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알서포트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모비즌'을 미국에 정식 출시했다. 알서포트의 기기간 원격 제어 기술이 B2B 시장을 공략하는 모델인 반면 모비즌은 B2C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모비즌은 HTML5 기반 미러링 기술을 기반으로 PC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경원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BW청약 물 먹은 경원산업 100억짜리 추가베팅 나선다

경원산업이 카지노업체 지앤엘을 인수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지만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00억원 규모의 BW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원산업의 제8회차 BW 청약에 120억2000만원이 모집됐다. 당초 목표로 한 250억원에 129억8000만원이 미달됐다.

경원산업이 이번에 발행한 BW는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7%이며 만기는 2017년 8월5일이다. 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8월5일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당초 씨그널정보통신(100억), 최영철(100억), 그로우스앤밸류디벨로프먼트(11억8000만원) 등이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원산업은 무선통신단말기가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자 작년부터 석유류 판매사업에 뛰어들어 작년 152억원 매출 중 142억(93%)을 유류유통을 통해 올렸지만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2011년 20억4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40억원, 2013년 6억6900만원으로 손실을 지속했다.

만약 올해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종목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원산업은 제주도 소재의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 중인 지앤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앤엘이 운영 중인 지앤엘 더호텔제주는 객실 202실과 43개의 게임테이블 등을 보유한 호텔로 연결기준 매출 240억원, 영업이익 6억원, 당기순손실 4억8000만원 수준이다.

작년 연말부터 1500원을 오르내리던 경원산업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 5월 초 14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6월 20일에는 4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1분기 말 기준 경원산업의 부채비율은 266%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을 합해도 80억원에 불과해 지앤엘을 인수할 경우 자금은 외부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BW 청약이 대거 미달하면서 인수 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원산업은 7일 최영철씨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제9회차 BW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30TH
1984-2014
SK telecom 30th Anniversary
「ICT 노믹스 시대」를 시작하며
이제 우리는 '성장'을 넘어
'성숙'을 이야기 합니다
성장이 몸이 자라는 것이라면
성숙은 생각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성숙은 세상을 가치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혼자 서는 힘을 배우는 것이라면
성숙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 ICT 노믹스 시대를 맞아
SK텔레콤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빠른 변화에서 바른 변화로
그렇게, 미래를 맞이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CT노믹스
ICT를 기반으로 사물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산업 또한 융합·재편되어
ICT가 사람, 산업, 세상의 큰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말합니다
미래를 다시 쓰다
SK telecom